

● 발행인 칼럼 ●

마지막 단상(斷想)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2019년 마지막을 앞둔 몇 날 동안 장례식이 네 번 있었다. 그 중 첫 번째 장례식을 치른 교우는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그의 믿음이 의심스러운 가운데 병원으로 심방을 갔다. 의식을 잃고 있으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눈을 크게 뜨고 있었고, 누워 있었으나 곧 일어날 것 같은 모습이었다. 다소 놀랐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라 설교 중에 몇 번씩 물어 보았다.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멸망이 영생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반복되는 질문에 모든 답은 “예수님”이었다. 지난날 대학선교회 “CCC”의 여름수련회에서 김준곤 목사님이 학생들을 향해 백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모든 학생들의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었다는 백문일답(百問一答)을 아시리라.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홀로 완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우렁찬 외침과 같이 그 병실에서 믿음이 의심스러웠던 교우의 단호한 “예수님” 외침이 있었다. 우리가 병원을 다녀간 뒤 곧 그는 하나님 곁으로 갔다. 그의 딸에 의하면 아버지는 목사님 오시길 기다리셨다고 한다. 목사를 기다리셨던 그 교우의 마지막 말은 “예수님”이었다.

얼마 전 신학교 종강예배 설교제목은 “사생(死生)팬(fan)”이었다. 그렇게 설교제목을 잡은 것은 신문기사를 보고 나서이다. 신문은 유명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사생팬들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기사를 담고 있었다. 그들이 움직임을 어떻게 알았는지 비행기를 타면 바로 옆자리에 사생팬이 앉아서 “hi” 하니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나는 사생팬에서 사생이란 단어가 죽기 살기를 뜻하는 사생(死生) 팬인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도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사생팬이 되자는 메시지를 외치려고 “사생(死生)팬(fan)”이란 제목을 순서지를 만드는 전도 사남에게 전해주었다. 얼마 후 전도사남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사생팬에서 사생의 원래 한자는 사적인 팬을 뜻하는 “私生”인데 그냥 목사님이 적어주신대로 “死生”이란 한자로 순서지에 넣겠다고 하셨다. 그날 신학생들에게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토록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죽기 살기 따라다니는 팬이 되자고 죽기 살기로 외쳤다.

연말당회는 우선적인 역할은 지난 일 년을 결산하는데 있다. 올해도 그랬다. 많은 기관들이 보고를 했다. 기쁨과 감사와 격려로 가득한 보고시간이었다. 만일 보고할 시간에 보고할 것이 없다면 얼마나 민망한가. 실상과는 다른 보고를 하면 얼마나 어이 없겠는가. 한 일은 준비하나 준비된 보고가 없다면 얼마나 많은 의구심을 자아낼까. 보고는 지난날의 성실한 행적을 잘 정리하여 오늘의 정직함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다. 결산의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자원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하고 보고할 날이 있다. 그 날이 있다. 그 날에 주님이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 “내가 맡긴 일은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겪은 마지막 단상들이다. 이 계절에 사람마다 마지막 단상들이 있다. 모두가 예사롭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생각하게 한 마지막 단상들은 하나님이 올해 주시는 마지막 선물과도 같다. 마지막 단상들이 새해를 살아갈 때 훌륭한 자산이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2019 올해의 단어는 “THEY”

메리엄웹스터 선정...기존용례와 달리 남/여 아닌 중성지칭 트렌드 반영

어느 오후, 당신이 자주 가는 카페. 늘 앉던 자리에 앉으려던 당신은 누군가 놓고 간 핸드폰을 발견한다. 당신은 종업원에게, 아니면 (카페가 얼마나 큰지에 달렸지만) 카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누가 핸드폰 놓고 갔나 봐요”라고 외치겠지요. 이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모든 표현이 그렇듯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보통 아래와 같이 말할 것이다.

“Someone left their phone behind.” 이 말을 듣고, 문법을 간깐하게 따지고 틀린 건 고쳐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언어계의 세종대왕님 같은 사람이 영어권에 있다면 바로 불편해 했을지 모른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영어를 쓰는 나라의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영어) 선생님들이 저 문장을 봤다면 바로 빨간 펜을 들었을지 모른다.

누치 했나요? 위의 문장은 엄밀히 따지면 인칭대명사 사용이 잘못됐다. 주어 ‘someone’은 누구를 뜻하는 단수인데, 뒤에 따라오는 대명사로 복수인 ‘they’의 소유격인 ‘their’를 썼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군가 저 말을 한 사람에게 문법이 틀렸다고 지적한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른다. “아니, 단수 인칭대명사를 쓰려면 남자 아니면 여자를 지칭하는 his 아니면 her밖에 없는데, 그럼 이 폰 주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어에는 이렇게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중성 단수 인칭대명사가 마땅히 없었다 (Merriam-Webster Singles Out Nonbinary ‘They’ For Word Of The Year Honors).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 사전을 편찬하는 출판사가 10일 올해의 단어를 발표했다. 여기에 “They”가 이름을 올렸다. 보통 사전 편찬 출판사가 뽑는 올해의 단어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현상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신조어나 사람들이 기존의 용례와 다르게 쓰는 사례가 두드러지게 늘어난 단어가 선정되는데, “They”는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메리엄웹스터는 올해의 단어 11개 가운데 하나로 “they”를 선정하면서, “성별을 특정하지 않는 단수 인칭대명사 ‘they’”라고 용례를 밝혔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they”를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면, 갈수록 “그들”이나 “그 사람들”처럼 복수로 옮기면 오역이 되는 상황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영어에는 마땅한 중성 단수 인칭대명사가 없다. ‘everyone’이나 ‘someone’처럼 성별을 특정하지 않는 단어를 받아들일 대명사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 600년간 그 역할을 해온 건 ‘they’였다(메리엄웹스터).

이렇게 문법상의 맹점을 그동안 덮어준 ‘they’가 문화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쓰임새를 얻게 된 데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바로 이 이유로 기계적으로 빨간 펜을 들었던 선생님은 유기체처럼 진화하는 언어의 속성을 모른다는 편지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세상에 성별이 남자 아

황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럴 때 ‘they’를 써도 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온라인 사전을 검색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 혹은 여성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세상에서 자신을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으로 여기는 성소수자들은 자동으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은 ‘they’라는 단수 인칭대명사를 더욱더 받기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커밍아웃한 가수 샘 스미스(Sam Smith)는 오랫동안 중성 혹은 제3의 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샘 스미스가 9월에 올린 트윗: “이제 나를 지칭하는 대명사는 ‘they/them’이다. 오랫동안 나의 정체성을 두고 씨름해왔는데, 기나긴 전쟁에서 해방된 느낌이다. 이제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끌어안으려 한다.”

메리엄웹스터가 9월 they의 용례에 단수 인칭대명사로도 쓰인다는 사실을 공식



니면 여자 둘밖에 없다고 가정하시느냐”는 편견까지 받을지도 모른다. 메리엄웹스터의 선정 이유를 좀 더 살펴

뜻하는 대명사(they/their/them)가 새로운 옷이 됐고, 그 옷이 큰 유행을 탄 것이다.

소외된 이들 포용하는 쓰임새... 단수로 사용시 성별에 대한 무의식적 편견과 선입견 줄여

보자:

최근 들어 ‘they’는 스스로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으로 여기는 이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대화나 소셜미디어는 물론이고, 문법을 검수하고 교정한 뒤 출판하는 글에서도 제3의 성을 지칭하는 대명사 ‘they’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메리엄웹스터).

명백하게 남성을 뜻하는 대명사(he/his/him)도, 명백하게 여성을 뜻하는 대명사(she/her/her)도 모두 맞지 않는 옷으로 여기기 이들이게 복수 “그들”도 아니고, 단수이면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 혹은 성별이 없는 단수 “그사람”을

인터넷 검색 건수가 유행의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라면 확실히 단수 ‘they’는 올해의 대세 단어였다고 할 수 있다. 메리엄웹스터가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는 기준 가운데 실제로 검색 동향이 있고, ‘they’는 올 한해 지난해보다 검색빈도가 313%나 늘었다.

메리엄웹스터의 선임 에디터 에밀리 브루스터는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단수 인칭대명사를 쓸 필요가 있는 상

적으로 추가한 데 이어 미국 심리학회(APA)도 올해 they를 단수 인칭대명사로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

다. 심리학회는 그 이유로 “단수 인칭대명사 they의 용례를 보면 그동안 소외된 이들을 포용하는 쓰임새가 있다. 또한, they를 단수 인칭대명사로 쓰면 글쓴이가 성별에 대해 갖게 되는 무의식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674-7982(대표) (323)665-0009(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대표) (718)886-4424(한글국)
Fax: (718)886-0074(대표)
E-mail: nyck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0, July 6, and Nov 30.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34년 전통의 복음주의적 초교파 교육기관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Midwest University 학위과정
국제항공대학(원) / 경영대학(원) /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 상담대학원 / 교육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 신학대학(원)

부설: MIRI - Midwest 국제연구소, 국제비즈니스창업센터
GLI - 글로벌리더십연구소, 국가미래전략연구소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2019년 종교계, 성 추문과 테러로 얼룩져

(1면에서 계속)
5. 파리의 상징 노트르담 대성당 대형화재로 천탑 붕괴...시민들 탄식

노르트담 대성당만큼 프랑스를 상징하는 지역은 없다. 노트르담의 라이벌로 비견되는 에펠탑은 고작 100년 남짓의 역사를 가졌다. 노트르담은 1200년대부터 파리와 함께했다.

프랑스 문학 명작인 빅토르 위고의 "노르트담의 꼽추"도 여기서 이름을 가져왔다.

노르트담 성당이 마지막으로 훼손된 건 프랑스혁명 당시였다. 제1, 2차 세계대전 때도 거의 흡입 하나 없이 보존됐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국가의 상징이 무너지는 건 프랑스 국민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6.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우익 복음주의자들의 강력한 지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부분의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의 개인적인 행동과 상관없이 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연구단체 '공공종교연구학회'(the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 PRRI)는 최근 10번째 '미국인 가치조사'(American Values Survey)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9%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고 답했으며,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경우 응답자의 77%가 그렇다고 답했다. '강력하게 인정한다'고 응답한 백인 복음주의자들도 50%에 달했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53%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류 개인교인의 54%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한다고 답했으며, 백인 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테러 사건은 2019 10대 종교뉴스 중 2위를 차지했다.

류 개신교인 응답자의 27%만이 강력하게 인정한다고 답했다.

7. 꾸준히 증가하는 "The Nones"

주류교단의 교세가 예전 같지 않다. 주요 교단마다 교인 감소로 우려의 목소

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려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개신교 크리스천들에게 어느 교단에 속한 교회에 다니느냐고 물어보면, 특정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들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응답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서 2000년에는 주류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50%정도였지만 2016년에는 30%로

하락될 정도다
'2019 갤럽 설문 결과는 한마디로, 미국인 중 1/6은 이제 특정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들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결국 미국 크리스천들의 "탈교단 현상" 유행은 다음과 같은 추세들이 만든 결과다: 어떠한 종교적

가진다. 종종 각자가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행동양식을 따라 행동하느냐를 그 룩도의를 통해 평가하게 되면, 만족할 만한 개인평가가 나오기 힘들다.
우리 중에는 자기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토의할 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태도와 행동과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때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유익하다. 즉 개인적으로 깊은 대화를 하는 것이다. 대개 그런 사람은 자기의 행동이 어떤지에 대해 잘 깨

소속을 회피하는 미국인들의 증가 즉 "넌스(the nones)"의 증가(26%)로 인한 개신교인들 숫자 감소다.

8. 미 하원 처음으로 무슬림 입성

미 중간선거에서는 두 명의 무슬림 여성 하원의원이 탄생했다. 미 연방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팔레스타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라시다 트레입은 미시간주 하원의원 제 13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공화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지난 8월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다.

하집이 트레입 마크인 일한 오마르는 14세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온 소말리아 난민 출신이다. 태어난 곳은 소말리아지만, 어린 시절 내전을 피해 케냐의 난민캠프에서 4년간 생활했다. 오마르는 민주당의 연계 정당인 '미네소타 민주적농부노동당(DFL)' 소속으로, 미네소타주 제5선거구 하원의원 선거에서 78.2%로 압승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반이슬람 정서가 고조되는 상황이라 이들의 의회 입성에 더 큰 관심이 쏠렸다. 오마르와 트레입은 최저임금 15달러,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등 민주당의 기존 노선보다도 진보적인 정책을 지지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의 당선이 "진보적인 민주당과 트럼프 정부를 지지하는 공화당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4면으로 계속)

닫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자기의 태도를 기꺼이 고치려 하는 경우가 많다.

가끔 참석자 중에는 그룹의 기본목표와 동떨어진 기대치를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사람이 생긴다. 다른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최후의 방법으로 다른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 비협조적인 사람에게 그룹모임에 나오질 말 것을 정중히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과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하도록 한다.

시론 Path Breaking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만년설이 뒤덮인 히말라야 고산지역의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외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셰르파'입니다. 셰르파는 흔히 등반가의 짐을 날라주는 단순 보조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1953년 5월 29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에 첫발을 디딘 사람은 뉴질랜드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였습니다. 이처럼 히말라야의 위대한 산악인 결에는 항상 위대한 셰르파가 함께 있었는데 셰르파라는 단어는 짐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네팔 고산 지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이름입니다. 셰르파족은 약 500년전 동부 티베트에서 에베레스트 남부 빙하 계곡으로 이주해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험하고 가파른 곳이라도 그들이 가면 길이 열립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뚫고 개척하는 사람들이 '셰르파'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신을 '패스브레이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패스브레이킹'은 '패스'(Path, 사람들이 지나다녀 생긴 작은 길)와 '브레이킹'(Breaking, 깨뜨리다)의 합성어로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내는 개척자를 뜻합니다. 셰르파들은 대부분 보통 유망 산악인들의 이름에 가려져 있지만 그들은 오늘도 곳곳이 험한 길을 뚫고 설산을 오르고 또 오릅니다. 그들의 '패스브레이킹' 정신 앞에 히말라야도 머리를 숙입니다. 이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엠펜).

이제 성탄의 계절을 지나 곧 송구영신을 맞습니다.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를 '패스브레이킹' 정신으로 열어나가는 '셰르파'들이 되면 어떨까요? 지난날들이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발목을 잡아서 안 됩니다. 지나간 일들을 아무리 후회할들 무엇 합니까?

연세가 지긋한 노인이 값이 비싸 보이는 도자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도자기를 보고 아름다움에 놀라 모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조심스럽게 가던 노인이 그만 돌부리에 걸려 몸을 휘청거리다가 길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들고 있던 귀한 도자기가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툭툭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치우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길을 갔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보기에 상당히 값나가는 도자기인 것 같은데 그 보물 같은 귀한 것을 깨뜨리셨는데 어찌 뒤도 안 돌아보고 담담하게 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자 노인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부서진 도자기를 보고 아무리 후회할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소? 뒤늦게 후회하느니 차라리 이후에는 앞을 잘 보고 조심하며 걸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말하여 무엇 하며 이미 지나간 일에 땅을 치며 억울해 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2019년도에 어이없는 일이 왜 없었습니까마는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을 후회할들 무엇 합니까? 이미 열질러진 물인데, 다만 그 후회를, 그 미련을, 그 아쉬움을,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2020년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참회'입니다. '후회'와 '참회'는 엄연히 다릅니다. 삶은 뒤를 보는 '후회'가 아니라 '참회'하며 이를 디딤돌 삼아 앞을 보며 달려가는 긴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가면 가난한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방문객일지라도 누구나 다 농사를 쳐야 합니다. 건물 뒤편에 밭이 있어 고구마를 캐니다. 그런데 그 고구마가 제법 호박만큼이나 큼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고구마도 있나 싶어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특별한 비료를 사용하셨는지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비료를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을 땀 때마다 호미 날로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고구마에 상처를 낸다는 것입니다. 아물면 호미 날로 다시 상처를 내고, 아물면 또 호미 날로 상처를 주고 그렇게 반복하다보니 고구마가 이렇게 커졌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매해마다 받은 상처들이 오히려 점점 더 단단해지는 인생을 만들어 가는구나' 생각해봅니다.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는 아무 것도 그려지지 않는 도화지와도 같습니다. 이제 2019년의 상처, 미련, 아쉬움, 억울함, 후회 등등을 다 내려놓고 '참회'하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2020년을 살아갈 우리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갈 줄 믿고, 패스브레이킹(PATH BREAKING) 정신으로 새해에 새로운 길들을 꿈꾸고 개척해 나가실 때 반드시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pastor.eun@gmail.com

개방된 의사소통, 정기적 평가...

(1면에서 계속)
어떤 경우에는 그룹 멤버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기대치를 갖도록 돕는 일도 생긴다.

셋째, 잠재적인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다. 기대하는 바는 계속 변하기 마련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도 마찬가지다.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2개월에 한 번씩,

그룹의 형태, 진행과정, 주제 등에 관한 기대치가 변화했는지 혹은 다른 것으로 대체됐는지를 알기 위해 그룹의 분위기를 평가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기대치를 표명한다면 그룹의 기본 목표에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아예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다.

넷째, 그룹 멤버들과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이취임 감사예배

2020년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는 O.C 기독교교회협의회"

제29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이취임 감사예배가 애나하임에 소재한 미주비전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부탁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직전 임원들과 새롭게 출발하는 2020년 회장단 및 이사회와 임원들이 내년도에도 주님의 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신임이사장 이호우 목사



신임회장 박상목 목사



직전이사장 민승기 목사



직전회장 이 서 목사



후원이사장 김영수 장로

- 일시 : 2020년 1월 6일(월) 오후 5시
- 장소 : 미주비전교회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 29대 회장단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끝까지 성장합시다! 계속 성장합시다!

소의 임신기간은 사람과 비슷하게 약 10달 정도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어미소는 30-40분의 진통 끝에 송아지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송아지는 30분 정도만 지나면 혼자 일어서서 걷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떤가요? 생후 30분 만에 걷는 송아지와는 크

게 다르게 아기는 생후 12개월 정도가 되어야 겨우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아기의 성장은 오랜 시간을 요구합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단기 코스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도 속성코스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성장을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는 시간, 훈련받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실천하는 시간 등등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훈련하고 실천하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올해도 다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한 해 동안 신앙성장을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아마 풍성한 결실을 맺은 분들도 있고 아쉬움이 남아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던지 예수님을 닮아 가려는 우리의 노력은 올해 한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신앙생활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계속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묵

상하는 사람이 행동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뀝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생각 지킴이 인생지킴입니다. 생각 관리가 인생관리입니다. 생각이 열리면 인생도 열립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사람이 인생도 다스립니다.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겹으로 마귀와 싸울 때에 '나의 자아'를 섬기려는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주 안에서 '내'가 죽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심자가 위에서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날마다 나의 뜻을 내려

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 말씀이 필수적임을 압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자가 스스로 음식을 먹지 못하면 의사는 튜브를 이용해서 강제로라도 영양분을 섭취하게 합니다. 환자의 회복과 생존을 위해 영양분 섭취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식욕이 없을 때는 억지로라도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아기에 어머니의 젖이 생명이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을 먹어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성장하면 성

장할수록 주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만약 올해 영적인 성장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올해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썼다면 작년도 조금 더 성장했을 것입니다. 계속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잘 마무리 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영적 성장을 사모하세요. 영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영적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의 줄을 붙잡으세요. 선행을 배워주세요. 새해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 영적인 성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푸/른/초/장

이남수 목사

(하와이 행복교회)



세상에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지 아십니까?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은 사람의 나이입니다. 나이는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부릅니다. 그 배도 안 부르는 나이지만 며칠 지나면 모두 또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사람들은 12월이 지나고 1월 1일이 된다고 무조건 나이를 울리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 생일이 지나야 그때 한 살 울리지요. 꼭 자기 생일이 지나야 1살 더 먹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성질도 급합니다. 12월 31일 아이를 낳고 다음 날 1월 1일이면 한 살 더 먹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2살이라고 해요. 하루 지났는데 2살인 것이 한국의 나이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 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12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란 말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 주셨다 하는 말이에요.

올해 2019년 한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신문마다 올해 가장 큰 뉴스를 뽑습니다. 하와이에도 하와이 한국일보가 올해 가장 큰 뉴스를 뽑습니다. 또 한국 신문이나 미국 신문에서도 올해의 큰 뉴스들을 뽑아 발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 중에 혹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사건들이 있

습니까? 사건 하나. 하나 다 중요한 사건입니다만- 지나고 나면 모두가 다 지난 과거입니다. 아무리 시끄러웠던 사건도 지나고 보면 흘러간 과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뉴스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올해 기뻐던 일과, 슬펐던 일 그리고 화났던 일 또 가장 복있었던 일-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아 보았습니다.

회를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저에게 있어서 2019년 한 해 남은 것은 감사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2019년도 한해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간이 기록한 것입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대충 이런 뜻이에요.

너는 올해 가슴으로 살았니?

첫 번째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내내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한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교회 하와이에서 지켜 주셨어요. 저는 하와이에서 우리교회처럼 행복한 교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셨어요. 올해 저에게 두 번째 큰 사건은 교

머리로 살았니? 너는 올해 웃고 살았니? 정그리고 살았니? 너는 올해 아름다워진 거야? 추해진 거야?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올해 어떻게 살았니? 하고 물으신다면 올해 어떻게 살았니? 하고 물으신다면 나는 감사로 살았다고 답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5:18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마 이 말씀 여러분도 수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으로 여러 번 설교한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별로 감사할 만한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더구나 요즘 이상 기온으로 여러 재해가 많았습니다. 올해도 수많은 태풍 피해가 있었습니다. 허리케인과 한국에는 태풍들 또 자연재해들이 많았습니다. 또 올해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불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주변을 봐도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아주 기막힌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편

에서 자족하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진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4:4에 감옥 안에 있으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우기 전에는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우기 전에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족하는 것을 배웠더니 이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만족하고 행복하는 것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기뻐하는 동물이 아

있었다. 나는 배부를 때도 있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나는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고 믿음 안에서 감사와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누가 더 잘 하고 누가 더 성공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공부했습니까? 누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사업이 잘되고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은 아니예요.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비록 성공하지 못했어도 내가 비록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내가 비록 건강이 나빠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한다는 고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월의 끝 마지막 주일에 지난 한 해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일, 좋았던 일이나 나빴던 일이나 속상하신 일이나 화난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고 2020년도는 더욱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가득 찬 한해를 사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13절

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자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예요. 그런데 자신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죄수가 자족하며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면서 자족하며 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몸이 아파 누워 있으면서 자족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속

입니다.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로 알고 풍부에 처할 줄로 알고...바울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할 때도 있었다. 부자일 때도 있었다. 나는 배고플 때도

2019년 종교계...

(3면에서 계속)

9. 힌두민족주의자들에 의한 인디아 종교 갈등 고조

나렌드라 모디 현 총리가 이끄는 힌두근본주의 성향 인도국민당(BJP)이 집권한 후 '힌두의 인도'를 건설하려는 힌두 근본주의자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무슬

림에 대한 적대가 격렬해지고 있다.

10. 반 유대주의 양상 심화

유대인에 대한 박해, 차별, 증오 등을 의미하는 '반유대주의'는 구약성경에도 기술된 오랜 현상이지만 19세기 들어 'anti-Semitism'이라는 말이 생겼다. 'Semite'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셈족의 자손, 유대인을 뜻한다. 주목할 점은 이런 현상이 '반 이민' 성향으로 대표되는 '자국 우선주의'와 '민족주의'가 부상하면서 세계 정치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과 맞물려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9년에만 캘리포니아 유대인 회당에서 1명, 독일에서는 2명 그리고 뉴저지 코셔 마켓에서는 3명이 살해당했다. 특히 뉴

욕 시에서는 반유대주의 정서가 더욱더 심화되고 이에 따른 공격과 위협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9 올해의 단어는...

(2면에서 계속)

한동안 문법적으로 옳지 않으므로 'they'를 단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굽히지 않

던 AP통신도 비판이 끊이지 않자, 지난 2017년 마지막 기준을 정정했다. 이제 AP통신의 취재기자들과 편집기자는 특정 성별을 지칭하지 않는 단수 대명사 'they'를 기사에 써도 교열팀의 지적을 받지 않는다. AP 스타일 북의 편집자인 파울라 프로크는 당시 기준을 바꾸기로 한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사실 단수 인칭대명사 'they'

를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사를 쓸 수 있다. 그래도 이제 기준을 바꾸기로 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사람들의 구어에 'they'가 단수 인칭대명사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지칭할 수 없는 사람들을 표현할 대명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흰눈같은 하나님의 은혜 겨울철 흰 눈은 마음속 은혜의 감흥들을 새롭게 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얀 눈 속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눈이 내린 겨울아침, 새벽예배를 향해서 갈 때면 마음 깊은 곳에 특별한 감사가 터져 나온다. 심쿵한 울림들이다.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일정하게 변함없이 새벽미명의 밝음을 허락하시는 그 성실하신 은혜를 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기에 매일 아침 그렇게 내렸던 아침 이슬들이 이제는 겨울이 되니 눈에 보여지는 눈으로 확연하게 그 꽃을 피우며 다가온 것이다.

그런 날은 감격과 감동 속에 새벽을 깨우게 된다. 더욱 힘 있는 찬양을 올려 드리게 된다. 말씀 속에는 더할 수 없는 감격이 배어 난다. 매일 매일 한량없이 부여주시는 그 은혜 앞에 억지같이 떠밀려 깨우는 새벽아침이 아니었음을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부여주시는 새벽은혜를

존귀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싶은 생각의 간절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은혜와 아름다운 고난
청년시절 다윗의 삶을 묵상하며 큰 은혜를 받았다. 그때 그를 표현하기를 남자를 표현하는 데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고는 더불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품었던 적이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책을 사면 늘 제일 뒤편 구석에 '아름다운 전나무 목사' 이렇게 써 놓고 마음에 평생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담금질했던 기억이 있다. 그렇다. 은혜는 죄를 싫어하게 하며 은혜가 깊어갈수록 더욱 아름답고 존귀한 삶에 대한 소망은 더욱 간절해진다. 은혜가 커질수록 은혜 앞에 죄 된 영혼의 불순물들을 씻어 내 주고 가까이 밀착되는 것을 느낀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운 소견과 학습의 경험들을 통해 바라보던 세상과 삶에 대해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영

생의 부족함으로 인한 흠결들을 찾을 수 없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간증하신다. 자신에게 드리워진 그 고난의 그림자가 자기 인생의 귀한 스승이였노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세 가지 고난의 일들이 그를 강건하게 이끌어 은혜 앞에 만족한 인생을 살도록 한 것이다. 혹자에게는 고난이 원망과 핑계로 드러나지만, 은혜를 가진 자에게는 고난은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것이다.

은혜와 육체의 정욕
은혜는 소금물 같은 육체의 갈증을 제어하는 능력이 된다. 최근에 크리스천이라는 유명한 가수의 과거 난잡한 행태가 신문방송에 회자거리가 되었다. 더구나 그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이라는 사실과 그의 장인이 되실 분이 유명한 연예인 출신 목회자라는 것이 겹쳐져 이슈거리를 만들었다. 본인 당사자에게는 아주 곤혹스런 일이다. 그러나 한편 이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여 맛보아 알게

길이 없다. 육체의 쾌락이던, 정신적 쾌락이던 한쪽을 택하여 갈 수밖에 없다. 칠십대 나이에 화려한 파파머리에, 빨간 스포츠카에 하얀 구두들 신고 다니는 분이 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잘난 멋에 사는 천하에 돌도 없는 멋쟁이라고 하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양식과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어릿광대가 아닌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여든이 넘는 나이에 TV에 나와서 자식들과 손주들이 볼 터인데, 꺼릴 것이 없다는 듯 젊은 날의 불륜을 이야기하며 근육질의 육체를 자랑하는 전직 영화배우를 보면, 그가 만든 아름다운 영화들조차 그 사람의 살기위한 직업에 불과했음을 보게 된다. 징그러운 느낌이다. 명품인생이 아니다. 결국 그의 죽음이후 그의 종교가 정해진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을 보면 그런 삶이 그렇게 불가해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은혜를 모르면, 영원한 세상에 대한 목표와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영어 사도신경에는 한글 사도신경에 없는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셨다)의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은 죽음 후에 지옥으로 내려가셨는지요?
-Harbor에서 이희은

A: 예리한 발견입니다. 한인 EM 교회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는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 가셨다 라고 영어 사도신경은 해석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는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우리의 영어권 자녀들이 예배 시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공공연하게 고백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 고백이 신구약 성경의 내용과 맞는 고백인가? 과연 어느 것이 바른가?

주경신학자였던 박윤선 박사는 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확실한 교리를 비판하면서 "사도신경의 사본 중에는 아퀴레이안(Aquileian creed)에 보면 "그가 지옥에 내려 가셨었고"라는 문구가 있다. 이 아퀴레이안 사본은 주후 400년경에 된 것이라고 한다. 카톨릭교회는 이 문구를 그리스도께서 별세 후에 구약의 성도들이 구속의 계시와 적용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장소인 선조림보(Limbus patrum)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다고 해석한다. 이 교리는 뱀전3:18-19절을 근거로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뱀전3:18-19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노아시대 사람들에게 전도하신 일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예수님이 죽음 후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배아

주경신학자였던 이순한 목사의 공동서신 176-177페이지를 보면 19절은 18절의 계속이며 18절과 19절은 둘 다 시간적으로 부정 과거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정 과거분사는 주동사의 동작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시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가 됩니다. 때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시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부활 후입니다.

19절의 "영으로 전파하시니"라는 말은 주께서 육신으로 40일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사실을 보여 주시고 증거하셨으니 영으로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파하시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게 뵙센"으로서 이 말은 선포하다, 공언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셨다(전도)는 헬라어와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였다는 말은 베드로서에도 3번 나오는데 그 단어는 헬라어로 "유양겔리조 마이"입니다. 선포의 의미를 가진 에게 뵙센과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선포하셨을까요? 오직 한 가지 곧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이 한 가지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화란자유대학 조직신학 교수였던 헬만 바빙크 박사도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갔다는 사실에 대하여 성경이 문자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아무 것도 말한 바가 없다." 그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전도가 아닌 승리를 전하는 선포설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사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의 선포사건이다. 옥중의 영들에게 대한 그의 부요, 능력, 개성의 선포이다. 예수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으로 그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는 개성 선포이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 사도신경의 "He descended into hell(지옥으로 내려가셨다)"은 확실히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내용은 신구약 성경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에 반드시 영어 사도신경에서 빼야 합니다. 한국 사도신경처럼 없는 것이 바른 것이며 또한 개혁주의적인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지옥에 가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후 몸은 무덤 속에 계셨고 예수님의 영혼은 회개한 강도에게 말한 것처럼 사후 즉시 낙원의 아버지께 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23:43).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한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아름답고 존귀한 나그네

- 은혜, 고난, 향기

이부자리 속에서 지치듯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의 여명 속에 새로운 하루의 삶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몸과 영혼이 반응하여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 자체에 감격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의 빛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선물 같은 믿음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인가? 아침마다 새로운 빛을 허락하시는 그의 한결 같은 성실하심을 보며 매일 아침 부족한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이다. 영원한 죄악가운데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천하만물을 움직이시는 조화로우신 손길을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품고 영혼으로 느낄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측량할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이다. 짧고 유한한 이 땅의 삶 속에서 그토록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어 하는 그 어떤 땅의 것들이 비록 내게 없을지라도, 은혜를 감격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이 활활함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맛을 보아야 아는 것이다. 이러한 땅국인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노라면, 가지 않고 쓸모없는 나라는 인생에 대해 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 나의 영혼과 육신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훈을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때로는 경책하며 자기 영혼을 물고 물아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은혜를 구했던 다윗을 통해 고통스런 삶의 현장에 직면할 때마다 이를 카피하며 흉내 내게 된다. 광야를 지나며 인생의 고통스런 현실에서 다윗은 하늘의 별을 보며 무엇을 바랬을 것인가? 고난이 짙을수록 더욱 선명하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통해, 마침내 다윗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벗어났던 것이다. 고난과 은혜는 비례한다. 고난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진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 고난의 일들은 아름다운 신앙인의 귀하고 복된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다.

어느 목사님은 자신의 믿음과 사역의 이유를 설명할 때, 늘 세 가지씩 말씀하신다. 지독한 가난, 죽음을 오가는 질병의 고통, 제대로 공부할 수 없었던 열악한 교육적 환경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전혀 그런 과거의 고통과 상관없었던 사람처럼 살아간다.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은퇴한 지금도 강단에 넘쳐 있는 건강함, 은퇴 후 연세가 많음에도 영어와 독일어로 유창하게 설교하시는 멋진 분으로 변화된 것이다. 아무도 그에게서 그의

된다면 이 또한 양약 같은 귀한 스승이 될 것이다. 그의 자유로운 영혼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위험한 말과 행동이 수위를 넘나들 때마다 아쉬운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있다. 저렇게 좋은 목소리와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나 그에게 재능은 있지만, 그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뿐이요, 별다른 은혜가 없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말이 방종의 자유를 널리 전파하는 데 사용되었을 따름이다.

그러나 최근 그의 삶에 나타난 평생 가수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을 그런 일들 앞에서, 오히려 그에게 인생최대의 은혜가 입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져본다. 이미 벌써 그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느끼게 된다. 절박한 위기의 이 순간들을 제발 돈과 처세술로 덮어버리지 말고, 진실한 회개와 영혼의 방종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매임으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허무와 공허함으로 타락과 방종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방향이 분명하지 않게 되고, 그런 인생이 기대하는 것은 그저 이 땅의 영화를 좀 더 오래 누리려는 것 외에 다른 답이 없다.

아름다운 나그네
아무리 유명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늘 그의 장례식 뉴스에서 빨간 십자가를 가장 먼저 찾아본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 노벨상을 받는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죽음은 항상 뒤를 돌아보게 한다. 지나온 삶의 족적에 대해 누구나 마지막 심판대를 향해 나아가서 설명할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은혜로 이끌림을 받은 인생이 아니라면 그 자신은 그저 자신의 인간적 욕망의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 불과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죽음 이후에 보일지는 그 빨간 십자가는 그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한 삶, 아름다운 나그네였음을 반증하는 표시가 된다.

교단의 존경하는 H 목사님이 조기은퇴를 하셨다. 국민일보에 믿음의 명문가 문으로 소개되는 분이시다. 대학입학 때 이미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은 육사에 진학하셔서 삼성장군이 되었고 당신은 목회자로 서원하신 부모님의 뜻을 따라 신학교로 진학을 하셨다. 그렇게 시작된 평생의 사역을 이제 마친 것이다. 목사님의 은퇴에 대해 교단에서 칭찬이

은혜와 쾌락
은혜가 없으면 인생은 결국 쾌락을 찾는다. 그 외에

많으시고, 후배들에게도 진정한 존경을 받으시는 모습이다.

은퇴 3년을 앞두고 교회당 건축을 시작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셨다. 사서 고생한다고 주변에서 말리셨고, 본인도 자신이 사용하지 못할 예배당을 왜 이렇게 힘들게 지을까? 하는 생각도 하셨지만 정말 보기 드문 아름다운 예배당을 끝까지 완공하여 봉헌하셨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 건축을 시작하면서 무리가 될 정도의 현금직점으로 모범을 보이셨는데, 마침 건축을 시작할 즈음에 암이 발견되어 그 암에 대한 보험료 보상금을 통해 건축현금을 드리실 수 있었다고 한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셔서 지금은 완치판정 통지서도 받았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하고 기이한 은혜임이 분명하다. 더불어 후임자를 청빙하면서 성도들앞에 설교한말 하게 하지 않으시고, 말 그대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오는 온전한 청빙을 이루시고는 정확한 은퇴에 대해 교단에서 칭찬이

한마디 단어만 기록되어 있다. '한량 없는 은혜!'

뒷모습이 아름다운 인생
한마디로, 은혜를 알고 누리고 경험하신 향기로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시간계에서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이며, 또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가 당신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될 것이며, 그곳에서는 누구를 만나게 되며, 어떠한 일들이 그곳에서 나타날는지, 자신이 평생 설교하시던 그대로의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특별한 인생의 연한에 이어지는 사역에서의 은퇴, 그 뒷모습의 아름다움과 향기라는 것은 세상 어떤 아름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같다. 태평양너머에 있는 여기까지 그 진한 향기가 진동하는 듯하다. 소망하게 된다. 주님 나에게도 오직 은혜로 아름다운 향기만을 남기고 가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목사님로 남게 하여주소서!
davidnjon@yahoo.com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파와리 브힐(PAWARI BHIL)

인도의 파와리족은 사다르 사라보르(Sardar Saravor) 댐("나르 마다 프...



와 동시에 이 댐은 32만이 넘는 인도 주민들을 집밖으로 내몰고, 수십만 가구 이상이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들을 홍수로 사장시켜버릴 것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기를 거부했고 댐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들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 이주돼 떠났으나 새로운 지역들에서 생계를 이어나갈 길을 찾지 못해 3년쯤 후 되돌아왔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곡물들과 집들, 그리고 수세기 동안 그들에게 속해 있던 토지들이 새 운하가 건설됨과 동시에 물에 잠겨버릴 것이라는 위협과 더불어 살고 있다. 약속됐던 재정착 계획들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 또한 부족하다.

전체 공사의 1/5 가량이 완공된 댐은 장차 세계 최대의 관계용 운하가 될 것이다. 그

삶의 모습

파와리족 사람들은 재정착 프로젝트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고 그들 중 대부분은 친지들과도 헤어졌다. 그렇게 집을 포기한 주민들 중 대다수는 복잡하고 지저분한 공동주거 지역으로 옮겨졌다. 의료시설, 전기 그리고 학교 등이 갖춰진 큰 주거지에서의 생활에 대해 약간의 보고기록이 있을 뿐이다. 처음에 사람들이 수몰지대에서 나오기를 열망했으나, 그들이 삼림지대를 계속 요구하자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지난 수년 동안 드홀(Dhule) 지방에서는 2.5에이커 단위로 해서 800개 정도의 땅(역사주: 약800만m2)에 해당하는 삼림이 사라졌다. 이 땅은 재정착민들을 위한 주택지로 사용될 것이다.

대부분의 촌락민들은 토지를 잃기보다는 물에 잠기는 편을 택해서 떠나기를 거부했다. 일부는 이주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갈 곳이 없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터전을 얻었

으나 그곳에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다. 이들은 고향으로 되돌아왔고 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있다.

파와리 마을의 가옥들은 전형적으로 대나무로 지어 초가를 얹은 형태로서 바닥은 단단한 진흙으로 돼있다. 그러나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가옥 개조작업이 이뤄지는데 첫 번째로 하는 일이 기와나 철판으로 초가지붕을 대신하는 것이다. 파와리족 사람들 중 일부는 더 크고 좋은 주거지를 짓는 재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 가옥들은 우선 창문 수를 늘리고, 주방과 침실, 축사를 각각 분리시켜 독립공간으로 개조하고, 더 편리한 욕조시설을 갖추며 바닥은 돌 재료를 써서 마감된다.

대부분의 파와리족 사람들은 숙련된 농부들이다. 토지가 그리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곡물재배에 필요한 물은 연중 강수량에 의존한다. 목수, 대장장이, 나무꾼 등의 직업을 가진 파와리족 사람들도 있다.

들일에 필요한 연장을 만드는 일, 이발을 하거나 바구니를 짜는 일들은 남자들 각자가 직접 한다.

파와리족은 브힐 언어 가운데 하나인 파우리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브힐 종족들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일부 파와리족 사람들은 마라티어(Marathi)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언어는 13세기에 구자라트에 제국을 건설했던 힌두 마라타(Hindu Maratha)들이 사용한 것이다.

신앙

파와리족의 98%가 전통 민족 신앙을 고수한다. 제사장이나 신전 혹은 우상은 갖고 있지 않으나 매우 미신적이고 주술에 연루돼있다. "브하반(Bhavan)"으로 불리는 신을 최고의 창조신으로 섬기며 희생제사와 제물을 드림으로 환심을 사려 애쓴다. 풍요의 신 "바바 콤바(Bava Kumba)"를 섬기는데 해마다 풍년을 기원

하며 염소 희생 제사를 드린다. 그들은 또한 "바그데브(Vaghdev)"로 불리는 호랑이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이 가축 때의 안녕을 보장한다고 믿는다. "우리의 신들은 걸어 다니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이 사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속담이 회자되기도 한다.

그들은 죽음에 대해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려움으로 인해 초자연적인 힘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송배해왔다. 그러나 이제의 다수의 파와리 사람들은 보건에 관해서는 주술의 힘보다는 의사들을 더 신뢰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그들의 생존이 홍수에 휩쓸릴 가능성에 직면해 있으므로 파와리족에게는 소망이 필요하다.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들과 함께 거닐기를 갈망하시는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 들어야만 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트럼프 탄핵 의원들과..WP "정치적 영향력 미미"

내년 11월 3일 실시될 미국 대선을 10개월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의 하원 통과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하지만 탄핵 충격파가 미 대선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 "하원 탄핵안 통과와 전제적인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WP는 그 이유로 미국 정치의 양극화를 꼽았다.



WP와 ABC방송이 지난 10~15일 미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탄핵 찬성'은 49%로 조사됐다. '탄핵 반대'는 46%였다. 지난 10월 말 실시됐던 같은 조사의 찬반 비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달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자의 85%는 '탄핵 찬성'을 지지했고, 공화당 지지자의 86%는 '탄핵 반대'를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확실히 나뉘어 있어 탄핵 충격파가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변수는 탄핵 심판 속도다. 애초 양당 모두 상원의 탄핵 절차를 내년 1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탄핵안을 손에 쥔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안 통과 직후 언제 이를 상원에 넘길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WP는 일단의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안을 상원에 넘기지 말고 쥐고 있다고 펠로시의장과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탄핵안이 넘어오는 대로 부결시키겠다고 공언해온 상원의 공화당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탄핵안을 당분간 넘기지 말자는 얘기다.

탄핵 정국의 영향은 어떻게든 두 당의 선거 운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트럼프 진영은 탄핵 정국에서 서로 이득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에 실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부도덕성과 불법성을 널리 알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과거 대통령들이 재선된 이후 탄핵 위기에 빠졌던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앞두고 있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과거 어느 대통령도 탄핵 절차 이후 재선 도전에 나선 적이 없어 트럼프 대통령에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은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부결을 '무죄'로 치환하면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정권을 빼앗으려는 음모로 몰아세울 것이 확실시된다.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에 집중하느라 의료보험과 종교 규제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실정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한 점이 실책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다.

유엔, 北인권결의안 15년 연속 채택

유엔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5년 연속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

안은 '가장 책임 있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며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18일 유엔총회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제3위원회(인권담당)가 지난달 14일 통과한 결의안을 그대로 상정해 통과시킨 것이다. 전원합의는 표결 요청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결의 방식으로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만장일치와 다르다.

이번 결의안은 "오래도록 그리고 현재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 인권상황을 규탄했다. 강제 수용소 운영, 성범죄, 공개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사례도 나열했다.

개선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남북 대화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북한은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북한 적대세력의 전횡적인 선언문에 불과한 이번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존엄성과 이미지가 깎아내리고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적대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라고 말했다. 또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도 특정 국가를 겨냥한 정치적 인권결의안에 반대한다며 북한 편을 들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주재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60여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에 동참했지만 이번에는 빠졌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앞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노력한다는 입장에 따라 전원합의 채택에 동참했다"면서도 "현재 한반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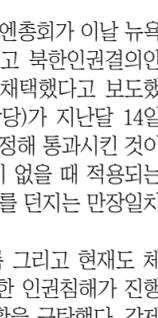
북한인권결의안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규탄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유엔의 인권결의안이다.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부터 3년 연속 채택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2005년부터 유엔총회에서 다루면서 올해까지 15년 연속 채택됐다. 강제력은 없지만 정치·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의미다.

北 성탄선물' 두고 시선 엇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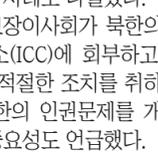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유효기간으로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측 관계자가 거론한 '크리스마스 선물'의 정체가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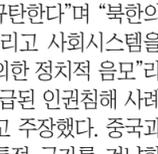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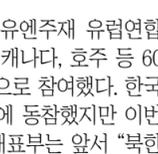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유효기간으로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측 관계자가 거론한 '크리스마스 선물'의 정체가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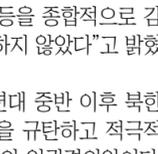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유효기간으로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측 관계자가 거론한 '크리스마스 선물'의 정체가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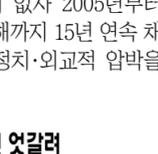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유효기간으로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측 관계자가 거론한 '크리스마스 선물'의 정체가 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유효기간으로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측 관계자가 거론한 '크리스마스 선물'의 정체가 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유효기간으로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측 관계자가 거론한 '크리스마스 선물'의 정체가 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유효기간으로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측 관계자가 거론한 '크리스마스 선물'의 정체가 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유효기간으로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측 관계자가 거론한 '크리스마스 선물'의 정체가 무

엇이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자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어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일 것이라는 전망과 업무용 '뽕가(속임수)'일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미국 내 대표적 대북 매과 인사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미 공영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위협에 대해 "엄포일 수 있다"며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이 지난 3일 답화를 통해 '연말 시한'을 재차 강조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나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힌 후 그간 북한의 크리스마스 전후 도발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볼턴 전 보좌관은 "난 북한이 하는 모든 얘기를 상당 부분 가감해서 듣는다"며 "이 모든 건 북한의 각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지난 3개 정권을 속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똑같은 일을 하려고 계획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과의 합의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시간을 끌면 더 나은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며 "우리 그저 지켜보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이 지난 17일 내놓은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전망이다. 브라운 사령관은 당시 워싱턴에서 열린 한 조찬행사에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의 정체를 묻는 취재진에 "내 예상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일 것"이라며 "시점이 성탄 전야나, 성탄절이나, 신년 이후나야의 문제일 뿐"이라고 답했다.

관측의 진위와 관계없이 당사국들의 외교 관계자들은 북한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19~20일에는 중국을 방문했다. 비건 대표가 방문 중이었던 16일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북한) 우리와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며 북한에 만남을 공개 제안했지만 북측은 묵묵부답이다.

미 북한전문매체 38노스의 제니 타운 편집장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주 북한 고위급 외무성 관계자의 발언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좀 섬뜩하다"며 "비건의 방한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그 침묵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스탄불서 고 김진욱 선교사 추모예배

고 김진욱 선교사를 기리는 추모예배가 지난 13일 터키 이스탄불 주교좌 성령 성당에서 열렸다. 아흐멧(디아르바키르 교회) 목사, 알리(터키개신교회 회연합회) 회장 등 터키 현지교회 관계자와 외국인 선교사, 한인 사역자 등 220여명이 함께 했다.



고 김진욱 선교사를 기리는 추모예배가 지난 13일 터키 이스탄불 주교좌 성령 성당에서 열렸다.

아흐멧 목사는 설교에서 12년 전 터키 말라티아에서 독일인 선교사 등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순교자 가족들은 가해자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용서했다"며 "성도의 죽음은 영광이다. 김 선교사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함께 나아가자"고 격려했다.

알리 목사는 추모사에서 "터키의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그들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르는 나라에 와서 모르는 말을 배우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사역자 대표로 참가한 월 선교사도 "김 선교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요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다"며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교사는 2016년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터기에 파송돼 사역하다 지난달 19일 괴한에게 피살됐다.

영국 테스코, 중국내 외국인 재소자생산의혹...

영국의 6세 소녀 플로렌스 위디콕은 대형 유통업체 테스코에서 산 자신 크리스마스 카드를 개봉하고 깜짝 놀랐다.



영국의 6세 소녀 플로렌스 위디콕은 대형 유통업체 테스코에서 산 자신 크리스마스 카드를 개봉하고 깜짝 놀랐다.

산타 모자를 쓴 고양이와 그려진 카드는 새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카드에는 "우리는 중국 상하이 징푸 교도소의 외국인 재소자들이다.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강제로 일하고 있다"며 "인권단체에 알려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적혀 있었다.

22일 BBC,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들은 이 소녀의 이야기와 함께 테스코가 중국 내 외국인 재소자의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크리스마스카드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카드에는 메시지를 발견한 사람은 피터 험프리와 접촉해달라는 문구도 적혀있었다. 영국 기자 출신인 험프리는 컨설팅사를 세워 중국 기업을 조사하는 탐정 일을 하다가 2013~2015년 상하이 교도소에 감금된 적이 있다. 그는 마지막 9개월을 징푸 교도소에서 보냈다고 BBC에 말했다.

소녀의 아버지 벤 위디콕은 카드 메시지에 대해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고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꽤 심각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충격 받았지만 글을 쓴 사람이 부탁한 대로 험프리에게 메시지를 넘겨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카드를 본 험프리는 "이건 아마 여전히 복역하고 있는 내 교도소 동료들이 쓴 것 같다. 집 단으로 만들어진 게 확실하다"며 "이 대문자는 한 사람의 글씨체이며, 누구인지 알 것 같지만 절대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징푸 교도소 내 외국인 수용 구역에는 250명의 재소자가 있으며 재소자들은 "매우 황량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는 "외국인 재소자들은 매트리스 두께가 1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녹슨 철제 2단 침대에서 잔다"며 "겨울에는 극도로 춥고 난방도 되지 않는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다. 매우 덥다"고 설명했다.

또 그가 수감됐던 때에는 비누나 치약 등을 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노동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의무화했다고 한다. 그는 "내가 거기에서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매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곳에 있었다"며 "내 생각에 불법 수감이나 근거 없는 판결의 희생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전했다.

테스코 대변인은 "이번 일에 충격받았다"며 "이 카드들이 생산되는 공장에서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교도소 노동력의 사용에 반대하며 교도소 인력을 투입하는 생산공장을 공급업체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토막

지금까지 중세교회 1000년의 긴 역사를 살펴보았다. 영적으로 어둡던 시절에 교회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 지혜와 능력으로 주관하고 계신 긴 역사의 한 토막에 불과하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중세교회로 흘러왔으며, 그 흐름이 계속하여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다.

지난 역사는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를 공부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과거의 일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함으로써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의 관심은 창조 후 인간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어둠에 잠긴 중세교회의 긴 역사를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와 그 가치를 찾는 것이었다.

그동안 중세의 역사를 서술하는 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순서에 별다른 의미가 없이 나열해 보도록 하자. 어거스틴, 이슬람, 종교회의, 교황, 황제, 수도원, 신성로마제국, 교회의 분열, 동방교회, 서방교회, 십자군, 스킴라철학, 이단, 신비주의, 중세 신학자, 대학, 교회의 타락, 문예부흥, 성경번역, 신학논쟁, 그리고 동로마 멸망 등이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도시이다. 초대교회 역사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성령강림 후 이 도시를 중심으로 작지만 힘차게 복음의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핍박이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졌다. 종교의 자유가 찾아온 뒤 예루살렘은 소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부와 함께 초대교회의 중심지가 되었다. 중세를 맞아 유럽에 변화가 찾아왔다. 기독교가 유럽을 대표하는 종교로서의 자리를 확고하게 한 것이다. 기독교 신앙을 지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활동하였던 이스라엘을 흠모하였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확고한 신앙을 위해 반드시 방문하고 싶은 성지였다.

그러나 622년에 이슬람교가 등장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종교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모하메드(Mohammed, 557-632)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큰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기독교가 오래전에 정착한 상황 속에서 시간적으로 훨씬 늦게 시작된 이슬람은 매우 무서운 기세로 세력을 넓혔다. 모하메드는 자신을 따르는 공동체를 조직하고 전쟁을 일으켜 아라비아, 시리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등 많은 지역을 함락했다. 결국 637년, 비잔틴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다.

이슬람에게 중요한 성지는 아라비아 반도 중부에 위치한 메카, 즉 모하메드가 탄생한 도시이다. 예루살렘 역

시 그들에게 3대 성지 중에 하나이다. 단지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한밤에 가브리엘 천사가 모하메드에게 신의 표증을 보여주기를 위해 하늘로 그를 데려간 뒤 몇 시간 후 메카로 인도했다고 한다. 이 사건을 근거로 이슬람들은 예루살렘을 메카와 영적으로 긴밀한 도시로 간주해왔다. 그들은 685년부터 691년까지 과거 예루살렘 성전 터에 웅장한 돔을 건축하였다. 이후 10세기 말부터 세력을 키운 셀주크 왕조가 1073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특히 유럽을 장악한 서방교회는 성지탈환 및 보존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 십자군 운동이 생겨났다. 1096년부터 무려 200년간 7회에 걸쳐 십자군 원정을 감행

개의 교회가 되었다. 십자군은 이슬람 세력의 등장으로 인해 동로마황제가 서방교회에 지원을 호소한 결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교황 우르바노 2세(Urban II, 1035-1099)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방교회를 자신의 통치하에 두어 통일된 교회의 수장이 되려하였다.

그 당시 서방교회가 유럽 전역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황이 있었다. 800년에 교황 레오 3세(Leo III, 750-816)가 카롤링거 왕국의 전성기를 이룬 샤를마뉴 대제(Charlemagne, 742-814)에게 로마황제의 제관을 수여하였다. 962년에는 교황 요한 12세(John XII, 937-964)가 오토 1세(Otto I, 912-173)에게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제관을 수여하였다. 또한 1077년에는 신성로마제국의 하인리히(Henrich IV, 1050-1106)가

화의 교류가 촉진되는 유익을 얻기도 했지만 순수한 종교적 동기를 상실한 나머지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교회의 사명은 결코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교황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 십자군전쟁에서 자행된 무자비한 살육이나 겁탈, 약탈이나 테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행위였다. 그들은 세속적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더러운 양심을 십자군의 그림자 뒤로 숨겨두고 명목상 종교행위가 가능하다는 믿었다. 방법과 수단이 어떠한지 신앙의 동기로 교회와 개인이 힘과 부를 누리는 것이 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망가진 전통을 후대 교회에 남긴 것이다.

몰락과 여명

사들이 타락함으로써 영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탁발수도회를 통해 새롭게 개혁운동이 시도되었으나, 교회와 교황의 영향력으로부터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일부 수도회를 통해 어거스틴의 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종합된 중세교회의 전형인 스콜라신학이 발전되었다. 신의 보편을 중심으로 실재론과 유명론으로 나누어 격렬한 논쟁이 진행된 스콜라 철학은 결국 중세말기에 쇠퇴하였다.

하나의 교회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서방교회 안에 민족교회의 발상이 자리 잡게 되었다. 나아가서 중세교회 말기에 등장한 문예부흥으로 인해 각 개인 신앙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장시간 중세교회를 장악하던 어둠을 뚫고 여명이 도래하면서 중세교회의 역사가 마감되어갔다. 어두운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강조하던 영국의 개혁자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8-1384)는 로마교황과 교황청의 부패와 교리를 공격하였다. 1382년에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일로 인하여, 사후 31년 만에 이단으로 판결 받아 그의 뼈를 태워 재로 만들어 강에 내다버렸다.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체코의 개혁자 얀 후스(Jan Hus, 1370-1415) 역시 중세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고발하며 공격하였다. 비록 그가 1415년에 화형에 처해졌지만 그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보헤미안 공동체를 조직하고 개혁사상을 실천에 옮겼다.

16세기 종교개혁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중세교회가 몰락되는 과정 속에서도 미세한 외침이 있었다. 성경의 진리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 1000년을 지나는 동안 교회 안으로 침입한 불순물을 제거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 지난 5세기 동안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21세기 교회는 중세교회의 말기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온갖 저서한 세속적 불순물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공감하고 있다.

우리는 중세교회가 걸었던 역사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함께 배웠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시대의 교회를 덮고 있는 질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복종하여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교회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끝)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 (52)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종교개혁자들, 교회침입 불순물 제거와 성경적 교회 세우기에 최선 중세말기와 흡사한 21세기 교회...교회는 오직 성경 권위 인정해야

했다. 성지탈환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명분조차 상실된 수치스런 종교행위로 전락되었다. 이단 척결이란 명목으로 고문, 약탈, 학살을 자행하였고, 심지어 어린아이도 죽이는 만행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유대인과 무슬림이 기독교에 대해 영원한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 십자군운동은 중세교회사에 커다란 오점과 치욕을 남긴 채 마감되었다.

교황의 교회

왜 서방교회가 성지탈환에 성실하게 임하지 못했을까? 초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슬람을 물리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지리적 조건을 포함하여 다양한 원인이 있었으나,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된 이후 발생한 두 교회 사이의 갈등을 수위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서방교회는 로마를 기점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왔다. 교리적 차이가 있었지만 그보다 정치적 갈등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파문하기에 이르렀다.

단일 교회로 출발한 중세교회가 두

자신을 파문한 교황 그레고리 7세(Gregory VII, 1015-1085)를 만나기 위해 카노사 성으로 찾아가 굴욕적인 모습으로 관용을 구했다. 그레고리 7세는 동방교회를 의식하여 오직 로마교회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며 교황만이 우주적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절대적 힘을 지닌 교황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증가되었다. 게르만족의 이동 이후 찾아온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럽전역이 기독교화가 되었다. 더욱이 교황의 교회와 국가를 모두 장악하면서 서방교회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중세교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 교회가 힘을 키운 만큼 십자가 복음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한 것이다. 십자군에 가담할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했다. 교황은 동방으로 진출하여 넓은 땅을 차지하려는 왕과 영주들의 야망, 그리고 부와 명예를 얻으려는 기사와 상인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였다. 십자군 운동으로 인해 동서간의 상업발달 및 문

일반적으로 1309년부터 1377년까지를 '교황청의 아비뇽 유수기'라고 부른다. 고대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유수되었던 역사를 상기시킬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교황들이 로마를 떠나 프랑스에 머물러 있었다. 이 시기 동안 프랑스인들이 교황의 자리에 올랐으며, 프랑스 국왕의 지배를 받았다. 한때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던 교황들이 국가 권력자들의 보호 하에서 사치스런 삶과 도덕적 문란을 일삼으며 타락의 극치를 보인 것이다.

더욱이 1378년부터 1417년 사이의 '서방교회의 대분열'이라 불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탈리아 로마와 프랑스 아비뇽에 두 교황청이 있었으며, 두 명의 교황이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상대를 적그리스도라 부르는 우스꽝스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사건들을 단순히 교황의 권위만 실추시킨 것이 아니었다. 중세인들에게 교회 자체에 대한 불신을 싹틔게 한 것이

다. 교회의 타락에 대하여 자성의 소리와 행동이 있었다. 수도원운동을 통해 교회의 개혁이 시도되었다. 불행하게도 향후 부와 명성을 얻게 되자 수도

Worldwide church directory with logos and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in NY, NJ, and other regions.

리더십 코멘터리 (102)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피날레 리더십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저 하늘의 별을 잡자

2019년 한해도 우리 모두가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왔다. 사실은 인생 전체가 힘들고 어려운 날들의 연속이다. 이제 믿음 안에서 올 한해 받은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위한 꿈과 비전으로 충만해보자.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

우리 주변에 끝마무리를 잘 못하는 이들이 많다. 마지막이 더 향기 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맨 끝이 어떻게 결론지어질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 진실과 성실로 생을 살아온 리더에게 반드시 결실이 따르게 마련이다. 성경에 나오는 100여명의 주요 캐릭터 가운데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결말이 좋게 끝난 사람은 20%미만이라고 한다. 초기에 몰락한 사람, 초라하게 마친 사람, 그저 그렇게 마친 사람들이 많은 반면, 인생의 마

인간은 관계적 존재, 하나님과 인간 모두 지속적 관계유지 인생길 광풍 불어와도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가져야

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연말에 램프처럼 너무 염려하며 인생을 심각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 돈키호테가 되어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저 하늘의 별을 잡자.

연말 스피치에서 리더의 품격을 지켜라

연말이면 많은 리더들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스피치를 해야 할 경우가 많아진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진솔하게 전하는 감동적인 스피치는 리더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에 좋은 기회이다. 거기에 세련된 유머가 곁들여진다면 듣는 이의 관심을 더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리더들에게 필요한 퍼블릭스피치, 격려와 칭찬, 갈등과 위기관리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구체적인 건강계획에 이르기까지, 리더로서의 실질적인 핵심 전략들이 요구된다.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에 리더는 개인의 역할을 스스로 강화하고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품격 있는 리더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엘리아의 겹옷처럼 삶의 유산을 남기는 리더가 되라

무리를 아름답게 맺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 신약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끝까지 사명을 다하고 유종의 미를 거둔 분들이다. 리더는 영향을 미치며 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거둬 결실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엘리아의 겹옷처럼 삶의 유산을 남겨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리더가 되길 기대한다.

끝까지 다이내믹한 관계를 유지하라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처럼 조금한 마음을 품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을 긴 안목으로 바라보라. 눈앞의 현실만을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삶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다. 그래서 리더는 다른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조언과 보호를 받고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생활가운데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지인은 꼭 내 위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동급이거나 때로는 나보다 아래 있는 사람, 아니면 책을 통해서 만나는 역사적 인물까지 포함할 수 있다. 평소 애를 쓴 마무리를 하려는 꿈을 품고 열심히 관계를 맺

을 수 있는 지인들을 만들어 나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영적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감을 개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훈련을 받는 리더는 마지막이 아름답기 마련이다.

퍼펙트골드를 이루어 내는 새 일꾼이 되라

시대를 이끄는 탁월한 리더가 되라. 인간성숙의 3단계가 있다. 비판의 단계, 비전의 단계, 섬김의 단계가 그것이다. 시기와 모험을 일삼는 말꾼이 비판의 단계라면 섬김으로 무장한 일꾼은 섬김의 단계일 것이다. 새해에는 남을 비판하고 헐뜯기보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되자. 당신은 말꾼인가? 구경꾼인가? 아니면 일꾼인가? 목표점에 완전하게 명중하는 것을 일컬어 퍼펙트골드(Perfect Gold)라고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하는 일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 그 기쁨과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점에 이르기 위하여 살아간다. 하나님은 새 시대 새 일꾼을 부르신다. 새 일꾼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희생이 따라야 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꾼을 통해 새 시대가 열리게 마련이다. 성숙의 단계를 거쳐

퍼펙트골드를 이루어내는 새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길 바란다.

마지막이 더 향기 나는 리더가 되라

인생길에 광풍이 불어와도 놀라거나 절망하지 말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자. 주님께서는 풍랑과 광풍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인생길에 광풍이 불고 큰 파도가 삶과 믿음, 나의 신앙까지 송두리째 흔들고 요동치게 만든다고 해도 우리는 그 속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주님을 태우고 갔던 배도 광풍을 만났듯,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련과 고통 그리고 시험이 내 인생 길에 다가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세미한 믿음소리를 듣고 계신다.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늘 잊지 않는다면, 삶에서 나의 소중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수많은 광풍과 풍랑을 만날 때마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믿음과 절규를 주님 보좌 앞에서 아뢰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적의 물꼬가 터지는 승리의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께 순종하시니 참 감사해."

sondongwon@gmail.com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말 그릇

제목이 낮설다. 그러면서도 정겹다. 낮이 선 것은 그 그릇을 나의 작은 마음에 품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그 작은 것은 내가 그 말 그릇 안에 머물고 있는 까닭이다.

'천냥 빛도 말 한 마디에 달렸다'는 속담은 삼척동자도 아는 말임에도 말의 중요성은 강조되는 만큼 우리의 실생활에 가깝게 다가오지 않는 숙제이기도 하다. 이 숙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거룩한 부담이며 건강을 위해 해야 되는 운동과도 같다. 해야 된다는 결론은 나와 있는데 과정에 부여할 동기가 같기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갈등의 요인은 말을 인식하는 우리의 사고 때문일 것이다. 말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너무 쉽다는 점이다. 일상에서 가볍게 접할 수 있는 자연 혹은 공기와 같이 특별한 의식하지 않아도 말은 늘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이 말은 말을 이용하려는 자들의 수단이 되는 까닭에 말을 믿기가 어렵거나 거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세월이 하수상하다보니 남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보이소피심이라는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보이소 즉 말로 사람을 속이는 수법인데 이는 눈을 뜨고도 코 베어 감을 당하는 것처럼 황당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다. 이 말로 사람을 낚는 수법이 하도 교묘하고 능숙적이라서 검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경찰도 즉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도 예외 없이 당할 정도라고 한다.

요즘의 대한민국은 참으로 어수선하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며 선악마저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로 혼란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수단 역시 말이 사용된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덕과 윤리도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마저 저버리는 참으로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싶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모르지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조항 하나를 놓고 아전인수적 이분법적으로 해석하여 논란이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제4조에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현 정부와 집권당이 "자유민주적"이란 말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인터넷 등 여러 SNS에서도 왈가왈부(曰可曰否) 시끌벅적하다. 혹자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뺄다할지라도 여전히 민주주의로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니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말이 안 되는 말을 주장한다.

"자유민주적"이란 말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란 단어를 합친 것으로 "자유"는 목적을 "민주"는 수단을 가리킨다는 것을 간과하거나 숨기고 있다.

(11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386</p>	<p>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올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한):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회: 오후 8:00 영 아 올 배: 오후 8:00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주일) 오전 11:00, (토)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형찬양: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 아 올 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p>	<p>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iejc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일),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산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el: (804)560-7500, www.i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사역자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



여승훈 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모든 사역자들은 끊임없이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다.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역을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자주 서지 않는 한 그 모든 사역은 가짜사역이 되고 말 것이다.

보라. 왜냐하면 너무 두리뭉실하다는 느낌을 주는 새해 목표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역자들에게는 온 몸을 불사르고 싶은 정도로 도달해야 할 한 가지 목표가 분명히 주어진다.

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역자들이 온몸을 불사르고 싶은 정도로 도달해야 할 한 가지 목표는 성령에 의하여 믿어지는 목표다. 그 목표를 함께 확인해보자.

지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바로 그분이다. 설교를 준비할 때 회중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은 불타는 마음으로 준비하라. 심방을 할 때 그 성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은 불타는 마음으로 심방을 하라.

르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불타오르는 마음을 놓친 채 사역을 화려하게 장식하려고 해서 안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불타오르는 마음은 놓치고 있는데 사역의 환경이 안정적이라고 안도하며 행복해 하고 있다면 이미 사역자의 자리를 탈선하고 있다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를 인식하지 않으면 회중 전체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에 긴장하라. 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주사어셈나잇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하나님 경외하는 지성 연마해야”

아주사어셈나잇, 어셈나잇, 강사 강준민 목사

아주사퍼시픽신학교 한인동문회(회장 승광철 목사) 송년모임이 16일 오후 6시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에서 열렸다.

학습해야 하고 부족함 느끼고 계속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목사는 “목회자는 학자이기에 지속적 학습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지성을 연마해야 한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쓰신다. 말씀을 제쳐놓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제침 당하게 된다. 목

회자는 계속 공부해야 한다. 하나님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신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고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 하루하루 보통사람들과 같지 않은 지식의 깨달음 갖게 된다면 대단한 축복이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라.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는 삶 경외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승광철 목사 인도로 교수소개를 했으며 장제임스 집사 사회로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박성민 박사(분교 총장특별자문위원) 축복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한미연합회 송년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피터 허, 지희 허 씨에 루미너리 시상

한미연합회 36주년 기념 리더십축하송년회

한미연합회(대표 유니스송, Korean American Coalition)는 지역사회 봉사 36주년을 기념하는 “Celebration of Korean American Leadership” 송년회를 18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뮌헨 컨트리클럽에서 개최했다.

유니스송 대표는 “한미연합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참여, 분쟁 조정 해결 및 차세대 리더십 발굴을 위해 했던 활동 및 성과를 기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가오는 2020년에는 보다 많은 한인 리더들의 진취적인 행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 분쟁 조정 해결 및 차세대 리더십 발굴을 위해 했던 활동 및 성과를 기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가오는 2020년에는 보다 많은 한인 리더들의 진취적인 행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송년회에서 올해 한미연합회 루미너리 시상은 PAFCO 회장 겸 Pete’s

Seafood의 공동운영자인 피터 허(Peter Y. Huh)와 PAFCO 부회장 겸 Pete’s Seafood의 공동운영자인 지희 허(Jihee Huh) 씨가 수여받았다.

한미연합회 루미너리 상은 한인사회에서 리더십, 선한 영향력, 관용, 희망, 그리고 강인함으로 보다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빛(LIGHT-Leadership, Impact, Generosity, Hope, Tenacity)이 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피터 허, 지희 허 씨는 다국적 벤처사업의 공동창업자로 인권, 교육, 미주한인과 아시아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활동에 깊이 참여했다.

한미연합회는 1983년 설립된 이래 미주한인과 한인 지역사회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GMU 해외현지 신학교육 장학금 후원 안내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총장 최규남 박사)와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는 해외 현지 사역자들에 대한 신학교육 후원 이벤트를 준비했다.

해외 현지인들의 선교적 신학을 보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선교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장거리(Distance) 교육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이벤트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과테말

라 현지 신학생들에게 GMU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장학금 후원을 하기 위한 행사다.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의 도네이션 홈페이지(http://churchhomepage.org/ICMM/donation/)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장학금 후원 신청(GMU Overseas Theological Education Scholarship

Donation Application)이 가능하다.

2020년도 현지 사역자들이 30명 정도 신청 중으로 신학교육을 위한 예산이 3만 달러 정도 필요하다. 후원하는 모든 금액은 세금 감면이 된다. 온라인 결제는 Paypal 크레딧 카드 방식을 통해서 가능하며 수표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로 과테말라 현지에서 생산한 고급커피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선착순 80명. 후원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문의: (714)525-0088, admissions@gm.edu (기사제공: 그레이스미션대학교)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Southern California (서부(CA)교회안내). Includes church names, addresses, phone numbers, and service times for various denominations like Presbyterian, Baptist, Lutheran, etc.

동부교계 게시판

링컨센터 공연 참가 청소년 선발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 산하 청소년센터(AYC, 대표 황영송 목사)가 2020년 9월 20일 링컨센터 공연에 참가할 청소년을 선발한다. '탄타' 형식의 이 공연 참가자들은 전문 문화단체와 함께 약 1년간 준비와 연습기간을 갖는다. 대상은 7-11학년으로 담임목사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대학진학 봉사활동으로 인정되고 공연 후 뉴욕주 및 시의회 의원 봉사상을 받게 된다. 12월 30일 마감.

▲문의: (718)279-1313, admin@aycny.us

2020년 겨울학기 SAT 프로그램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는 2020년 겨울학기 SAT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모짜르트 학원과 함께 진행하는 SAT 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인 강의를 준비하고, 등록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각 교회 추천). 참가대상은 9학년에서 11학년까지이며 2020년 1월 4일-3월7일(10주간). 등록비는 800달러(청소년센터 추천).

▲문의: (718)279-1313

예장백석미주동부노회 목사임직식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미주동부노회가 주관하는 김순배 강도사 목사임직식이 2020년 1월 12일(주일) 오후 5시 사자교회(담임 이창남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646)772-5947

롱아일랜드성결교회 신년부흥성회

롱아일랜드성결교회(담임 이상원 목사)가 2020년 새해를 맞아 이신용 목사(신길성결교회 원로)를 강사로 1월 3일부터 5일까지 신년부흥성회를 갖는다. "기도의 실제와 위력"(엡6:18)이라는 주제로 일정은 다음과 같다. △3일(금) 저녁 8시("기도의 절대 이유와 실제", 빌4:6) △4일(토) 새벽 5시 30분("영적 무장인 기도의 실제", 엡6:13) △저녁 8시("능는기도의 실제", 행2:1-4) △5일(주일) 오전 11시("영의 기도와 실제", 갈5:16-18) △오후 4시("소그룹의 실제", 출17:11-12).

▲문의: (516)333-0191

IT 강좌

네이버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개념부터 배우는 기초 프로그램' IT 강좌가 2020년 1월 6일(월) 오후 7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8주 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열린다. 강의 장소는 Neighbor Plus: 2fl 256 Broad Ave. Palisades Park, NJ. 선착순 20명이며 수강료는 100달러, 학생은 수강료 보충 프로그램이 있다.

▲문의: (201) 461-0909 www.neighborplus.org

영적각성 부흥회

기독저널(대표 임성식 목사)이 주최하는 영적각성 부흥회가 2020년 1월 55일(주일) 오후 5시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다. 주강사는 미즈키세노 목사(순복음나리타교회 담임), 채한성 음악감독과 성진영 찬양사역자가 함께 한다.

▲문의: (718)886-2323



유니온플라자요양원뉴욕미션양상블이 연주하고 있다.

뉴욕미션콰이어 유니온플라자요양원 위로공연

제시유 교수가 이끄는 뉴욕 미션 콰이어(New York Mission Choir)와 NYMAS 앙상블(Ensemble)의 성탄음악회 위로공연이 12월 19일 오전 유니온플라자 요양원에서 열렸다.

단목 이지용 목사의 기도예언이 이어 뉴욕미션합창단은 나의 찬양, 주는 내 피난처니와 Now sing we joyfully onto God을 오프닝 무대로 선보였다.

이어 NYMAS 앙상블은 제시유 교수 인도 아래 아침이슬, Love me tender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곡을 색소폰으로 연주했다.

또 테너 영감이 참 좋으신 주님을 그리고 소프라노 이희정

이 모차르트의 알렐루야를 차렷 불렀으며 독창후 제시유 교수의 Silent Night과 Jingle Merry Christmas의 캐롤 연주와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가 있었다.

소프라노 이희정의 O Holy Night 독창에 이어 뉴욕미션합창단과 미션양상블이 함께 Amazing Grace, 국악풍의 찬양 우리 모두 찬양하세와 고향의 봄을 연주한 후 어르신들과 함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면서 모든 연주를 마쳤다.

뉴욕미션합창단은 12월 28일(토) 롱아일랜드 한국요양원에서 송년음악회 공연을 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뉴욕미션콰이어)



해외기독교문학협회 2019년 마무리 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상식이 통하는 목사회”

뉴욕목사회 제 48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상식이 통하는 목사회”라는 표어를 내건 뉴욕목사회 제 48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이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대한교회(담임 김진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이준성 목사(뉴욕양무리교회)는 “총회현장에서 추악한 모습을 보고 ‘상식’을 생각하게 됐다”며 “48회기가 권위나 탈 권위나, 복종이나 순종이나, 명령이나 창의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상식을 통한 개혁과 갱신의 고민을 동역자들과 함께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준성 목사는 “무조건 바꾸는 개혁이 아니라 합리적인 개혁, 무조건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있는 새로운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회원들의 격려와 위로를 당부했다.

이임하는 박태규 목사는 “서로 격려하고 존경받는 목사회”



뉴욕목사회 제 48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로 1년간 지내왔다. 47회기가 잘해왔음에 감사하며 특히 임원들에게 감사한다”며 “48회기를 잘 돕고 더 아름다운 목사회가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1부 예배는 한기술 목사 인도로 김경길 목사 찬양후 시작돼 기도 박시훈 목사, 성경봉독 박드보라 목사, 설교 양민석 목사, 헌금축복기도 김희숙 목사, 축복송 송금희 전도사 안전나 집사, 성시남송 조의호 목사, 축도

김원기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교회회장 양민석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행 13:22, 시78:67-7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5가지 영성(양떼 앞에서 선 영성, 골리앗 앞에 선 영성, 사울 앞에 선 영성, 나단 선지자 앞에 선 영성, 압살롬 앞에 선 영성, 죽음 앞에서 선 영성) 중 첫째와 둘째 영성에 대해 전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에서 열린 성탄 크로마하프 발표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께 영광, 교회와 가정에 새 활력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성탄절 뉴욕크로마하프 발표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가 12월 22일 주일 오후 5시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해 “2019 성탄절 크로마하프 발표회”를 가졌다.

이만호 목사는 “우리 구주나신 성탄을 기념으로 동방박사들 같이 ‘성탄절 날 가장 크게 기뻐한 사람들’(마2:10)이 되고 싶어 그간 간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한 단원 30여 명이 모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발표를 하게 됐다”며 “무료한 삶 가운데 삶의 의미와 부가가치 인생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와 가정에 새 활력소를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윗이 수금으로 댄던 악기인 크로마하프로 그간 몇 차례 교회행사 중 할렐루야 대성회 때 2회 공연과 신년하례 때 1회 공연을 한바 있다. 그 외 뉴

저지목사회 취임식, 효도잔치, 결혼식, 요양원, 각종행사 등에서 찬양과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지금까지는 홍보 없이 모였으나 회원 모집을 더해 100여명 회원을 만들어 내후년쯤 카네기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발표회에 참석한 가족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찬양연주단들에게 큰 용기와 꿈과 힘을 안겼다. 어느 회원의 딸은 “우리 엄마가 연주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라고 말하면서 “나도 엄마처럼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열심히 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기사제공: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2020년 ‘해외기독교문학’ 출간 원고모집

해외기독교문학협회 2019년 마무리 모임

해외기독교문학협회(회장 이조연)가 12월 14일 오전 11시 2019년을 마무리하는 정기모임을 뉴욕새침장로교회(담임 박태규 목사)에서 열었다.

1부 예배 설교는 윤세웅 목사(고문)가 “하나님의 어린양”(요1:3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보혈의 구속사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자. 행위로 얻은 구원이 아닌 은혜의 선물임을 지각하며,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또 김해종 목사(고문)는 직접 디자인한 해외기독교문학협회 패널과 배지를 전달했다.

2부는 이조연 회장 사회로 진행됐다.

조광렬 수필가는 아버지이며 한국의 3대 청록파의 한 사람인 조지훈 시인의 시의 원리를 통한 “시의 비밀”과 “시의 3가지 기본성격”을 강의하고, 기

독교 시인 박두진의 신앙시를 낭송했다.

이어서 회원들의 자작시 낭송이 있었으며, 오찬과 함께 협회에서 마련한 선물을 나눴다.

해외기독교문학협회는 2020년 5월경 ‘해외기독교문학’ 출판기념회와, 등단 축하 감사예배 및 문학의 밤을 준비하고 있다. 책발간을 위해 비회원들의 원고와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문의는 이조연 회장에게 전화(646-932-6881)나 이메일(jlee363@yahoo.com)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해외기독교문학협회)



이노비가 KCS 플러스 경로회관에서 공연하고 있다.

양 목사는 “첫째, 다윗의 성실함은 자기 직분을 지키기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 둘째, ‘평균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말의 언행일치를 행한 다윗의 모습은 기독교와 사역자들이 세상 웃음거리가 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라며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며 역사에 쓰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부 취임식은 총무 마바울 목사 사회로 시무기도 권캐더린 목사, 축주 신우철 목사, 이임사 박태규 목사, 목사가 전달, 취임사 이준성 목사, 임원소개, 공로패 증정(47회기 박태규 회장, 김진화 총무, 박시훈 서기, 김희숙 회계),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대표 이규형 목사), 축사 한재홍 목사, 이만호 목사, 격려사 정익수 목사 윤세웅 목사, 권면전희수 목사 허상희 목사, 내빈소개, 광고 이기웅 목사, 폐회 및 오찬기도 박이스라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장 권캐더린 목사 등 임원선출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정기총회, 헌법개정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2월 모임이 정기총회로, 12월 20일 오전 10시30분 기쁨과영광교회(전희수, 권캐더린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신임회장에 권캐더린 목사, 사무총장에 박이스라엘 목사, 회계 전희수 목사, 감사에 박진하 목사를 선임했다.

임원선출에 앞서 있었던 헌법 개정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1조(명칭)은 영어명칭만 The Bread and Gospel of Eastern America, Inc(TBGEA)로 변경한다. △4조(사업) (5)교육사업 중 선교사 양성을 위해 선교신학교를 발족 운영한다(추가). △3장 13조(선임) 회장, 사무총장(추가), 이사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4조(임기) (1)회장, 이사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수정). (2)사무총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수정). (3)회장과 사무총장, 감사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추가). (4)회장 유고 시 직무는 사무총장이 대행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추가).

신임회장 권캐더린 목사는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단체”라며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다. 굶주리고 힘든 사람

들을 돕는 기아대책 선교의 사명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 부족한 사람에게 많은 기도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회의에 앞서 한 예배는 박진하 목사 인도로 기도 김인한 장로, 오카리나 찬양, 설교 전희수 목사, 축도 한준희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전희수 목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삼상4:1-2, 7:12-14)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회원들에게 2019년 한해를 어떻게 지냈는가 묻고, 2019년 이 진정 에베에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에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천둥으로 블레셋을 물리치셨다”며 “에베에셀은 꼭 승리와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는다. 2019년 힘들었지만 기아대책이 2020년에는 새 리더십을 세워 사명의 각성을 받고 힘차게 달려 나가자”고 말했다.

모든 순서는 박진하 목사 폐회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이노비, KCS 플러스 경로회관서 콘서트

문화복지 NGO 이노비가 12월 19일 오전 11시 재의동포재단의 후원으로 KCS 플러스 경로회관(관장 헬렌안)에서 퀸즈 지역 한인 어르신 250여분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했다.

KCS는 미국 이민이 본격화되던 1973년에 설립된 미동부 최초의 한인사회 전문복지기관으로서 미주 60세 이상 한인 어르

신들에게 무료 점심식사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공연에는 뉴욕일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클래식 뮤지션들이 다수 참여했다.

음악감독에 소프라노 조슬기, 소프라노 임다예, 장재영, 테너 조현우와 바리톤 박상민 그리고 바이올린에 윌리엄오와 박우진, 첼로에 이소정과 피아노에는 방문영 씨가 함께 했다.

이 날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한국가곡과 클래식곡과 크리스마스 캐롤을 준비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 공연은 재의동포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후원/공연 문의 이노비 이메일: enobinc@gmail.com 전화 (212)239-4438

(기사제공: 이노비)

지역 교회연합 부흥위해 기도

인랜드지역교역자협 교회연합 성탄예배

인랜드지역교역자협의회(회장 이희철 목사) 주관 인랜드 지역 교회연합 성탄예배가 지난 15일 랜초 쿠카몽가에 있는 인랜드 ANC은누리교회(담임 조강왕 목사)에서 가졌다.

인랜드 지역 한인교회 성도들은 찬양과 말씀으로 교제하며 인랜드 지역과 교회연합과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연합예배는 갓스윌연합교회(담임 이희철 목사), 남가주웨슬리교회(담임 박혜성 목사), 언약교회(담임 구진모 목사), 에덴선교교회(담임 윤석길



인랜드지역 교회연합 성탄예배에서 참석자들이 찬양하고 있다

목사), 인랜드교회(담임 안환 목사), 인랜드ANC은누리교회(담임 조강왕 목사) 등 6개 교회 성가대가 참가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의 기쁨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했다.

찬양에 앞서 조강왕 목사의 인도로 드린 연합예배는 ANC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에 이어 박혜성 목사가 기도, 윤석길 목사가 성경봉독, 이희철 목사가 “빨리 가서 찾아보자”(눅2:15-20)는 주제로 설교했다.

설교 후 구진모 목사가 “인랜드 지역과 교회연합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통성기도를 인도했으며 강문수 목사가 헌금기도를 했다.

이어 인랜드지역 교역자협의회 목회자 부부가 연합으로 헌금 찬양을 드렸으며, 박충길 목사(인랜드 영락교회)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코리언 클러지 라운드테이블 참가자 모집

LA카운티 정신건강국(LACDMH)은 코리언 클러지 라운드 테이블에 참가할 사역자들을 모집한다. 코리언 클러지 라운드 테이블은 정신건강 전문가, 교계 사역자들이 소그룹으로 철저한 비밀보장하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정신질환관련 토론과 교육, 리소스를 통해 실제 정신문제가 있는 교인들에게 서비스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총 명수는 14명(사역자와 전문가)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LA카운티 정신건강국 피어리스센터(560 S. Vermont Ave, LA)에서 한 달에 1번씩 모인다. 가입 자격요건은 △정신건강 혹은 질환에 관심이 있고 현재 교인을 직접 사역하고 있는 현장사역자 △6개월 내지 1년간 매월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역자다.

▲문의: (213)738-2943, 738-2907

OC교협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상목 목사)는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를 1월 6일(월) 오후 5시 미주비전교회(담임 이서 목사)에서 갖는다.

▲문의: (714)213-9627

선한정지기교회 2020년 신년 말씀사경회

선한정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는 2020년 신년 말씀사경회를 1월 2일(목)부터 5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노진준 목사(미주코스타 공동대표)이며 일정은 2-4일(토) 오후 7시30분, 5일(주일) 1-4부 예배.

▲문의: (626)913-6611

찬양교회 2020년 신년 간증 축복성회

찬양교회(담임 김성대 목사)는 2020년 신년 간증 축복성회를 1월 2일(목)부터 4일(토)까지 개최한다. 집회시간은 저녁 7시30분이며 강사는 2일 이상열 장로(가수), 3일 전재학 목사(나눔과 섬김교회 원로), 4일 유니스김 선교사(선사인미니스트리 대표).

▲문의: (213)383-7284

순복음세계선교회북미총회 OC지방회 송년예배

순복음 세계선교회 북미총회 OC지방회 송년예배가 29일(주일) 오후 6시에 성시베데스다순복음교회(117N Pomona Ave Fullerton, CA)에서 열린다.

▲문의: (714)469-1200

구국기도회 및 이춘근 박사 신앙강연회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 및 이춘근 국제정치학박사 신앙 강연회가 2020년 4월과 5월 양일간 시온성결교회(담임 최경환 목사)에서 열린다. 일정은 4일(토) 오후 3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국제정세, 5일(주일) 오후 3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란 주제로 이춘근 박사가 강연한다.

▲문의: (909)677-0028

지저스멕시코 제16차 사랑의 담요 보내기

지저스멕시코(대표 최재민 선교사)는 제16차 사랑의 담요 보내기를 실시한다. 지저스멕시코는 멕시코 선교를 위해 조직된 미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지난 2004년 1월부터 선교를 시작했으며 주로 많은 재할원과 여러 교도소들에서 영화상영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문의: (213)675-7575, 605-1978

차인표·신애라 장남 ‘크리스마스 후유증’ 싱글 발표

배우 차인표·신애라 부부 장남 차정민 형제가 23일(월) 오후 6시 ‘크리스마스 후유증’(After-Christmath)이란 제목의 싱글을 발표했다. 아주사퍼시픽대학교에서 실용음악을 공부한 정민 형제의 ‘크리스마스 후유증’은 감각적인 멜로디가 돋보이는 인디 팝스타일의 곡으로 설레며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지만 이후 후유증이 크다는 풋풋한 가사를 랩으로 풀어냈다. 차정민은 작사·작곡 및 노래, 랩, 코러스, 베이스 연주에 직접 참여했다. 싱어송라이터 윤유(OHNEW)가 피쳐링에 참여했고 스트링 세션팀 알비인제이(RB-INJ)가 참여했다. ‘크리스마스 후유증’은 유튜브(youtube.com/watch?v=FHhkaqQKuzM)에서 들을 수 있다.

(8면에서 계속)

수단은 언제나 목적을 앞설 수 없다. 투표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비유하는 것은 투표가 자유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며 자유를 버리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거룩한 나라에 온전한 한 개체(個體)로 독립시켰다. 그는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었으며 그 당시 선악과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다가서게 하는 가장 선한 행위언약이자 은혜언약의 표상으로서 날마다 치르는 투표행위와 같았다. 그는 선악과를 통해 충분히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자유는 자연법으로부터 나온 천부적인 권리인 것이다. 따라서 이 정권이 자유를 빼앗겠다고 하는 것은 수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목적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말 그릇 즉 마음에 담긴 말의 결과물이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말 그릇이 있는가 하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말 그릇도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에 주목할 절대 필요가 있다. 복음(福音)은 복된 말 즉 기쁜 소리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다.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히 살 길 영생을 주실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도의 말 그릇에는 이 복음만이 가득 담겨야 한다.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로 충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제 곧 성탄절이다. 이때쯤 우리의 인사말은 메리 크리스마스 즉 즐거운 성탄절을 주고받는다. 성도들의 말 그릇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즐거움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hanmac@cm1153.org



K-Worship on Christmas 콘서트에서 출연자들이 인사하고 있다

K-Worship on Christmas 콘서트

더락한인교회 주최 원하트미니스트리 등 참가

더락한인교회(담임 박정기 목사)는 K-Worship on Christmas 콘서트를 22일 오후 6시에 가졌다.

오버플로인교회 찬양팀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콘서트는 원하트미니스트리 찬양팀이 찬양했으며, 기드온 육 목사, 크라이스트커뮤니티교회 찬양밴드, 더락한인교회 밴드 J2P 등이 참여했다. 그리고 청소년 뮤지컬 찬양팀 시드오브 워십이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설교는 테드 강 목사(크라이

스트커뮤니티교회)가 이사가 9장 6절을 본문으로 전했다.

테드 강 목사는 “성탄주인공을 모른 채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은 누가 생일을 맞았는지 모른 채 파티하는 것과 같다”며 “예수님을 모르면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내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성탄 파티 및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살롬장애인선교회 성탄파티 및 장학금 수여식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는 “성탄축하파티” 및 “제20회 장애인 가족 장학금 수여식”을 19일 오후 6시 월셔아로마센터 The One Banquet에서 개최했다.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는

장애인 가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격려가 필요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교 재학생 11명 및 멕시코 선교지 장학생을 위한 장학금 1만1천300달러를 전달했다.

(기사제공: 살롬장애인선교회)



음악회를 마치고 출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페라뮤직아카데미 송년 음악회

오페라뮤직아카데미(대표 진복일) 송년음악회가 지난 12월 17일 오전 11시 로텍스호텔에서 열렸다. 진복일 대표는 “성탄절을 맞아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2020년을 맞이하세요”라고 인사했다.

음악회는 출연진 20여 명과 순서를 맡은 자들과 가족들 모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복일 대표 사회로 시작됐다.

이날 음악회는 △O Holy Nigt(허봉) △님이 오시는지(

권영자) △선구자(장치훈) △Nella Fantasia(차영희) △Santa Lucia(김주화) △The holy City(허성애) △사공의 노래(고선길) △보리밭(김영희) △물망초(Cassy Chun) △별(신정애) △M'appari tutt'amor(정홍준) △Amazing Grace(김레베카) △Auld Lang Syne, Oome, all ye faithful(조성진) 씨 등이 불렀다.

(기사제공: 뮤직아카데미)



리처드호프만 변호사

저소득층·서류미비 한인들 위해 사용

호프만 변호사, 한미가정상담소에 1만달러 쾌척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내외가 한인가정상담소(KFAM·소장 카니정조) 프로그램을 위해 1만 달러를 쾌척했다.

평소 한인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호프만 변호사 내외가 도움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한 한인들을 위해 후원한 것.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말며 언제나 정의로워라”라는 아버지가 주신 신념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며, “한인가정상담소가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펼치고 있는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라고 밝혔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정조 소장은 “정부 그랜트는 체류신분이나 보험 여부 등의 제약이 많아 서류미비자나 무보험자, 저소득층 한인들은 수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호프만 변호사처럼 건강한 한인가정을 위해 마음을 써주시는 분 덕분에 체류신분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한인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213)235-4848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 아프리카 우물파기 후원음악회에서 LA 청소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공연하고 있다

케냐 우쿤다 우물파기에 전달

국제기아대책미주한인본부 후원음악회

국제기아대책미주한인본부(대표 제이슨김 목사)는 아프리카 우물파기 후원음악회를 21일 오후 7시 지퍼홀에서 열었다.

이날 음악회는 LA청소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 정진식 목사, 데이빗 벅 박사)가 크리스마스 송과 클래식 곡을 선사했으며 안젤리크 칸의 피아노 연주, 니카셔먼과 엘리스 칸의 플루트 연주, 니암 토마스의 바이올린 연주가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국제기아대책 정승호 목사는 “아이들이 재능을 가지고 오늘 연주를 통해 아프리카에

아름다운 마음을 나눌 수 있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후원음악회에 모인 후원금은 케냐 우쿤다에 우물을 파는데 전달된다.

정 목사는 “인도양쪽에 위치한 우쿤다의 4500여명이 우물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아프리카는 우물관리가 잘 안 돼 우물이 설치돼도 오래가지 못했는데 이번에 파게 되는 우물은 우쿤다에 있는 학교에서 관리하게 되기에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박준호 기자)

“교회는 중립을, 성도는 참여를”

기윤실, 총선 앞두고 공명선거운동 발표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공명선거운동 계획을 발표했다. 기윤실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교회는 중립을, 성도는

참여를’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윤실은 공명선거감시단을 조직해 활동에 나선다. 감시단은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법 위반의 증거를 수집할

예정이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지속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온라인 감시도 한다. SNS나 메신저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들이 감시 대상이다.

TPV 캠페인도 진행한다. 선거에 대해 이야기(Talk)하고 열심히 기도(Pray)한 후 반대

시 투표(Vote)하자는 내용이 다. 교회에서 지켜야 할 공직 선거법을 안내하는 내용을 포스터에 담아 신청교회나 후원 교회에 배포한다.

기윤실은 “총선 기간 중립을 견지하며,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줄 것을 한국교회에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1.7% 기독교인이 전국을 뭉치게 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3·1운동 100주년 기념 콘퍼런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지낸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를 모색하는 콘퍼런스가 17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위임목사)에서 국제신학연구원(원장 김한경 목사) 주관으로 열렸다.

‘3·1운동의 의미와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민경배 백석대 석좌교수는 “3·1운동은 기독교의 거대한 힘,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큰

가를 나타내는 세계사적 사건이었다”면서 “당시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끝났다고 말하던 시기였지만, 3·1운동은 기독교의 힘을 세계에 다시 알렸다”고 말했다.

박명수 서울신학대 교수는 “3·1운동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주된 관심은 ‘독립’이 아니라 구성원의 동의에 기초해 세워지는 ‘민주주의 국가 건설’이었다”며 “미래지향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셈”이라고 평가했다.

박용규 총신대 교수는 “신민의를 배척하고 자유 민주 시민사회를 갈망하며 불의와 압제, 폭정에 항거하며 종교적 시민적 자유를 추구하는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한국 개신교인들의 신앙적 원리를 넘어 한국에 근대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원동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한국교회가 100년 전 주도한 3·1운동이 오늘날 교계에 시사하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민 교수는 “당시 기독교인 비율은 1.7%에 불과했지만, 전국을 하나로 뭉치게 만든 동력이 있었다”면서 “기독교인 비율이 30%에 가까운 오늘날 우리에게 교계가 얼마나 많은 일

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도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항하는 한국교회의 결단과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영훈 목사는 개회사 등에서 “한국교회의 어깨 위에는 100년 전 3·1운동의 정신이 이어가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면서 “교회가 중심이 돼 사회분오열된 한국사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자”고 말했다. 이어 “과거만 회상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하나가 돼 민족 통일을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탈북민 취업확대는 통일역량 강화 길”

선통협, 국회서 취업 제고 방안 토론회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문제는 개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길이다.”

조요섭 선교통일한국협의회(선통협) 상임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토론회는 선통협이 주관하고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주최했다.

조 대표는 “통일의 마지막 단계인 ‘사람의 통일’이 부분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과정”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중 가장 시급한 문제가 생업과 직결된 취업”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의 ‘2019년 공공 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국내에 입국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3만3000여명이다. 지난해까지 이들의 고용률은 60.4%로 일반 국민의 60.9%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취업의 질이 낮았다. 북한이탈주민 평균 임금은 189.9만원으로 일반 국민의 255.8만원보다 25.8% 적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 취업도 저조

했다. 2017년 북한이탈주민 3만1339명 중 공공부문에 취업한 비율은 0.64%에 그쳤다. 공무원 109명, 행정지원인력 92명 등 201명에 불과했다.

조 대표는 북한이탈주민의 공기업 취업 개선 방안으로 ‘북한이탈주민법’ ‘혁신도시법’ 등에 북한이탈주민의 의무고용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국민 중 북한이탈주민의 비중, 공공부문의 고용 취약계층 고용 의무화 비율 등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 채용 비율을 확정하는 것이다.

우선 남북경협 사업, 신북방 정책과 직결된 인프라(건설 교통 에너지 환경 수자원 등) 관련 공기업에 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 조 대표는 “한국 공기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은 남북한 차이점과 의사소

통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남북경협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인적자산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 공기업 취업 정책은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까. 조 대표는 “통일시대 공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북한 사회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취업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에 기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도 한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2등 국민이 아니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돼 향후 통일을 이루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엽 목사 “투명한 교단 만들겠다”

기침 제109차 임시총회 신임 총무 선출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신임 총무에 김일엽 목사가 선출됐다.

기침은 20일 대전시 유성구 침례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제109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총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선거는 1번과 2번 후보로 각각 나선 안병창 목사와 김 목사가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투표 결과 200여 표의 차이를 보이며 김 목사가 낙승을 거뒀다. 1차 투표에선 김 목사가 824명 중 511명의 지지를 받아 314표를 받은 안 목사를 제쳤다. 무효는 4표였다. 하지만 1차 투표는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회칙에 따라 다득표자로 결정하는 2차 투표를 진행했다. 2차 투표에선 김 목사가 457표를 받았다. 안 목사는 192표를 얻었고 무효는 1표였다.

이번 총무 선거는 지난 9월 강원도 홍천의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진행된 제109차 정기총회에서 당시 총무였던 조원희 목사가 총회 화합 차원에서 총무직을 사임하면서 치러졌다. 당초 조 전 총무의 잔여임기를 맡는 보궐선거로 치러질 것으로 보였지만 5년 임기의 총무선거로 치렀다.

이날 임시총회는 선거 전 시작부터 삐걱했다. 첫 번째 안건인 ‘108차 특별감사 관련 건’을 두고 일부 대의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투표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버텼다. 해당 안건은 특별감사위원회가 108차 회기 행정집행, 재정집행 등을 감사한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였다. 특별감사위원회는 지난 총회에서 108차 임원단의 재정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구성됐다. 총무 후보자로 나온 안 목사는 당시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부장이었다.

표결을 통해 순서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350명으로 반대(305명)보다 많아 예정대로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됐다. 특별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교단 전체 재정인 16억원의 절반인 8억원 정도가 지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별감사위원회는 “108차에서 재정 자료가 모두 넘어오지 않아 이번 감사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만 확인됐다”면서 “2019년 8월 21일부터 2019년 9월 31일까지 40여 일 간의 자료는 당시 재정부장이었던 안 목사로부터 전달받지 못했고 지금까지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산 과다지출, 소송 비용 등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안 목사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후보자 정경 발표 자리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구성됐다. 총무 후보자로 나온 안 목사는 당시

“뽀”이라고 설명했다.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교단의 행정 집행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안 목사는 신상발언을 통해 “법원에서 선거 후보를 인정했으니 총회 집행부에서 대의원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만약을 위해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법원에서 여러 가지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후보 사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단과 세습법에 물어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선거는 끝났지만 법리적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임 총무의 역할도 주목된다.

김 목사는 “법원 판결문에 따라 교단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면서 “지난 회차의 재정문제는 과거의 일이다.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니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단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이즈업코리아 국제기증본부 합병

(사)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임시총회와 국제기증본부(기독교세계선교) 정기총회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법인을 해산하고 국제기증본부로 합병하기로 결의했다.

새 이사장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전 총회장 채영남 목사를 선출했다.

복음의전함 내년 2월 아프리카서 대단원

‘6대주 광고선교 캠페인’ ...요하네스버그 등서 복음전파

세계 주요 도시에서 광고로 복음을 전해 온 ‘6대주 광고선교 캠페인’이 내년 2월 마지막 대륙인 아프리카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복음의전함(이사장 고정민 장로)은 2020년 2월 17일부터 한 달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 프리토리아에서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라면(It's Okay! with Jesus)’을 주제로 6차 아프리카 캠페인(

포스터)를 진행한다.

아프리카 캠페인에서는 남아공의 경제 중심 도시 요하네스버그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 대형 옥외 복음 광고를 걸고 복음을 전파할 계획이다.

요하네스버그 현지 교회와 한인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집회(기도회)를 열고 시내 중심지인 센터포인트광장에 집결해 연합 거리 전도를 진행한다.

아프리카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열리는 캠페인에는 아프리카한국교회협의회와 중남부아프리카선교사회가 함께 한다. 복음의전함은 다국어 전도지 12만장과 복음광고 티셔츠 2000장을 지원하며 국내외 전도단과 함께 복음 전파에 동역할 예정이다.

고정민 이사장은 “남아공은 기독교 국가로 알려졌지만, 내부엔 토속신앙과 미신 이단 등으로 얼룩져 있다”며 “복음 광고가 현지인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도/칼럼

사랑의 고백, 사랑의 노래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어떻게 뜻깊은 대강절을 보낼까? 찬송을 불러보라. 꼭 대강절 찬송이 아니어도 좋다.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면 된다. 예수님을 노래하다 보면 사랑의 샘이 터진다.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기쁨이 넘치게 된다.

요즘 하루의 첫 시간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시작한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고요한 새벽 첫 시간. 눈을 뜨자마자 조용히 사랑의 고백을 한다. 떨리는 입술로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 주님께서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사랑, 나의 아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 첫 새벽을 깨운다.

신앙 고백이 뿌리라면 사랑 고백은 꽃이요 열매이다.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도 좋아하시지만, 사랑의 고백은 더 좋아하신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복되다고 칭찬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금방 실수했다. 심자가를 지시겠다는 주님을 만류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 부활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조반을 함께 드시면서 흔들리는 시몬을 붙들어주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셨다.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 사랑으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 빠진 믿음은 넘어진다. 첫사랑이 식어진 믿음은 힘이 없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주님을 따른다. 죽기까지 따른다. 사랑이 제일이요 최고이다. 사랑하면 행복하다. 즐겁다.

대강절이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찬송을 불러보라. 두 팔 벌리고 품에 안아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사랑을 넘치도록 부여하실 것이다. 사랑을 점검해야 한다. 사랑이 없는 성탄절의 기쁨은 쾌락에 지나지 않는다. 분위기만 좋다면 헛된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다. 사랑 안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18:1). bible66@gmail.com

“초갈등사회 치달는 한국, 대의민주주의 실종 탓”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미선포럼 2019 기조강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국민일보와 한국교회총연합이 공동 주최한 국민미선포럼에서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의 갈등을 ‘밥그릇 싸움’이라고 비판하며 “대의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못하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까지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오는 25일 성탄절을 ‘대한민국 대화합의 날’로 선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포럼은 “초갈등사회로 치달는 한국이 풀다”는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렸다. 정 후보자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과 정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경제 성장, 사회 발전, 환경 보호 전이라는 3개 수레바퀴를 동시에 굴려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는다면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한국이 초갈등사회로 치달는 이유는 국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아 대통령 권한 축소와 분권을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했던 정 후보자는 “헌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고 국민 과반수와 의원 대부분이 동의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한 것은 선거구제 개편 때문이었다”면서 “정의를 말해야 하는 정치인이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비난을 받는 게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를 바꾸려면 국가의 기본법을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또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니 교회가 ‘우리라도 앞장서야겠다’고 나섰다”며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니 교회가 ‘우리라도 앞장서야겠다’고 나섰다”며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갈등 극복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기독교인들에게 박

수를 보내며 여기에 힘을 보태는 게 정치인의 자세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기독교 대표를 자처하는 일부 세력이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은 비판했다. 그는 “교회가 어떤 주장을 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는 미덕도 발휘해 힘주고 어려운 이들에게 위안을 주고 치유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일보가 앞장서서 교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소강석 새예멘교회 목사는 이어진 강연에서 “대통령이나 권력기관이 잘못된 길로 가면 교회가 당연히 비판해야 하지만 합리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면서 “교회가 매일같이 광장에 나가 집회를 주도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위임목사는 앞선 설교에서 초갈등 시대에 기독교계가 앞장서서 대화합과 일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갈등과 대립은 파멸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계속된 분열에 대해 기독교계와 지도층 후보자는 “헌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고 국민 과반수와 의원 대부분이 동의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한 것은 선거구제 개편 때문이었다”면서 “정의를 말해야 하는 정치인이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비난을 받는 게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를 바꾸려면 국가의 기본법을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또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니 교회가 ‘우리라도 앞장서야겠다’고 나섰다”며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갈등 극복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기독교인들에게 박

선교의 창 (137)



송승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전통교회와 선교단체의 상관관계

한인 세계선교를 어떻게 하면 더 역동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그 방편 중 하나는 모달리티(Modality)인 전통교회와 소달리티(Sodality)인 선교단체가 유기적인 소통 가운데 연합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1960-70년대에 걸쳐 급성장하였다. 이 때에 대학선교를 하는 단체들도 많이 생겨났다. 전통교회는 주로 부흥회를 일상화하며 목양에 힘썼고 선교단체들을 대학 복음화를 위해 제자 훈련을 강조하며 끈끈한 유대를 형성했다. 현대 이 두 구조는 보이지 않게 서로 반목하며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 모달리티(Modality)와 소달리티(Sodality)라는 두 개의 조직체가 있어왔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자연이나 혈연으로 구성된 자연적인 조직을 말한다. 이에 회원들에 대한 자적 조건은 크지 않다. 이 조직은 사람 중심의 관계 지향적이다.

모달리티는 일반적으로 다양성, 존재를 강조, 사람 지향적, 여론에 의한 행정, 안정을 지향, 생물학적인 성장, 낮은 헌신 등이다. 이를테면 유대인의 회당이나 교회 같은 조직체를 말한다. 모달리티 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영국교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선교단체가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에서 '전도의 팔(Evangelistic Arms)' 노릇을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신학적 논구를 거쳐 영국 학원 선교 연합단체인 UCCF 문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학원 선교단체에 대한 UCCF의 평가는 너무 교회중심으로 치우쳐 있다고 여긴다. 대학 선교단체가 단지 교회에서 캠퍼스 전도를 위한 특공대 수준의 위상으로 외소화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아무튼 교회와 선교단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영적 조직체임에는 틀림없다. 결코 뿌리가 다른 별개의 경쟁구도가 아니다. 그 차이는 신학과 신앙에 있지 않고 단지 기능상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란 모달리티로서 하나님의 인류구속을 성취해가는 중심기관이요 원동기이며, 선교단체는 교회의 위임을 받아 특별한 목적수행을 위해 파생된 소달리티적 역할이라는 것이다.

3. 두 구조의 상호연관성

역사적으로 모달리티는 소달리티를 없애버리는 경향이 고, 소달리티는 점차 그 구조

는 "세계선교"라는 넓은 관점에서 서로 존중하며 긴밀한 유대 속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교단체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전통교회를 섬기는 차원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좋다. 나아가 선교단체는 교회에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학복협의 대표를 역임한 이승장 목사는 "그 방편으로 지역교회가 하는 사역을 선교단체가 백화점식으로 다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선교회는 대학 복음화를 위해 지역교회가 할 수 없는 더욱 전문적이고 특수한 사역을 창조적으로 개발하며 진화해가야 한다. 참고로 선교한국이나 어버나 선교대회 같은 연합운동(Movement)이나 선교학교, 기도훈련 세미나, 한시적 양육 프로그램 등 많은 사역을 얼마든지 고안해낼 수 있다.

한편 교회에서는 일부 대형교회 외에는 대학인들을 전문적으로 훈련을 시킬만한 노후나 여력이 없다. 실제 교회에 온 대다수 청년 대학인들은 훈련보다 교회 봉사하기에 더 급급하다. 한참 배우고 훈련시켜야 할 때 성장의 기회를 놓치면 그들 당사자는 물론 교회와 하나님나라 차원에서 손해를 본다. 이로서 지역교회는 장기적 안목으로 대학인들이 선교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장려하며 물질양면으로 도와야 한다. 뿐만

Sodality와 Modality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교회와 선교단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영적 기관이다.

두 구조는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며 연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선교단체들은 카리스마 넘치는 멤버십(Membership)을 강조하며 독자적인 담을 쌓고 지역교회를 폄하하곤 했다. 따라서 지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는 이런 대학선교 단체들을 상당히 경계하며 부담스러워했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두 구조 가운데 몸 담고 있는 사역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세월이 흐른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교회와 선교기관 간의 이해도도 넓어졌으며 상당히 건설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몇몇 선교기관들은 폐쇄성이 강하며 일부 목회자들 중에는 대학선교기관들을 껴안지 않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과연 두 구조의 상생은 가능한가? 각각의 기능은 무엇이며 어떤 상관관계 속에서 연합을 이룰 것인가? 이에 우리는 현실적인 이해타산이나 막연한 편견 보다는 신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도자 형은 통제와 보수, 조화과 일치성을 우선으로 한다. 소달리티는 인위적 요소가 강하다. 주로 어떤 특정한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로서 목표 지향적이다. 여가의 특징은 단일성, 일을 강조, 과업 지향, 비전에 의한 행정, 선교 지향, 2차 결단에 의한 성장, 높은 헌신이다. 정치적 파당이나 학생 선교단체가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회자형은 역동성, 창의성, 비전과 도전 등이다.

2. 선교단체의 뿌리

모달리티로서 교회와 소달리티로서 선교단체의 관계는 이해도에 따라 그 무게중심이 다르다. 일반적인 관점은 선교단체를 가리켜 '교회 병행단체 (Para-Church Organizations)'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루덤(Grudem, W.A.) 교수는 이러한 견해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는 마치 선교단체가 교회와 병행(Beside)하므로 교회 밖에 있는(Outside of) 것이어서 서로 별 상관 없이 있음을 의미할 수

나 태도에 있어서 모달리티처럼 되는 경향이 있다. 중력이 전통교회에 있다는 말이다. 랄프 윈터(Ralph D. Winter)는 두 구조의 기능이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개신교도들 간에는 이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절한 관계에 대해 심각한 혼란이 계속 되어왔다고 평가한다. 그는 해석하기를 모달리티로서 교회조직은 매우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구조로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달리티 구조 외에 '소달리티'라는 또 다른 구조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이다. 이로서 두 구조는 모두 정당한 것이며 대 위임령을 이루기 위해 서로 조화롭게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하나님나라 확장에서 우리는 혼자서 일을 할 수 없다.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대등한 관계로 서로 공존하며 유기적 협력이 일어날 때 선교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4. 건설적 대안

이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아니라 타문화권 선교를 할 때 독자적인 행동보다 전문선교기관과 연합을 하든 아니면 자문이라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맺는 말

Modality로서 지역교회와 Sodality로서 선교단체는 주님의 과업을 이루기 위한 영적 한 몸체이다. 그러므로 서로의 사역적 기능이 심분 발휘될 수 있도록 도우며 함께 가야 한다. 교회의 배경이 없는 선교사 파송기관이나 단체들을 힘을 쓸 수 없다.

반대로 선교전문기관들을 배격하고 교회 독자적으로 타문화권 선교를 펼치는 것도 위험성이 크다. 정 교회 자체적으로 선교사역을 펼쳐려거든 영세하더라도 Sodality적 담당기관을 만드는 것이 좋다. 선교업무는 상식으로 풀수 없는 전문성, 특수성, 과중성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인교회는 Sodality적 전문선교기관들을 의도적으로 앞세우며 연합된 대안을 펼칠 때가 되었다.

jsong007@hanmail.net

캐플린 임상목회 (35)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캐플린)

완화 치료(Palliative Care)에 대한 이해

과거에는 환자가 입원하면 오로지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모든 의료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환자의 나이나 상태, 본인의 소원과 가족의 바람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 오직 생명 연장만을 위해서 모든 치료와 처치가 시행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환자를 위해서 최선인지, 환자의 의지와 의견이 존중되고 있는지, 반복되는 치료나 단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지, 환자의 입장에서 치료와 돌봄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 있는 쇠약한 환자들에게는 가능한 통증을 완화시켜주면서 증세가 더 급격히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하는 방법들이 모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과 연구들이 계속되면서 등장한 것이 완화 치료 혹은 임종완화치료(Comfort Care)입니다.

임종완화치료는 사망이 임박한 환자들에게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적절한 진통제 투여를 통해서 통증 없이 남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편안히 보내며 평화로운 임종을 갖도록 돕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치료 같은 어떤 적극적인 생명연장을 위한 조치나 시술을 피한 채, 마지막 남은 환자의 시간이 고통 없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가동해서 임종 완화 치료팀이 병원의 진료 일정과 자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 바로 캐플린입니다. 완화치료 주문이 담당 의사에게서 요청되면, 모든 해당 팀원들에게 곧바로 전달되며 완화 치료팀 전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케이스매니저, 캐플린이 가족과의 컨퍼런스 일정을 잡고 배우자나 자녀들과 같은 직계가족들을 모아놓고 완화치료 계획과 옵션을 설명해줍니다. 가족들이 완화치료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협조해주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족 간에 이견이 생겨서 2차 가족 모임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신앙상의 이견으로 임종완화치료 결정에 대해 가족들이 모두 합의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은 자녀들이 어머니의 임종을 앞두고 편안히 보내드리자는 자녀들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할 필요 없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야 한다는 자녀들로 나뉘어져 환자만 고통을 심하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환자는 신앙심이 깊은 크리스천이었기에 캐플린이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에 개별적인 방문을 통해 환자의 소원을 기록함으로써 자녀들에게 환자 본인의 의지를 전달해서 자녀들의 합의하에 임종완화치료를 받다가 나올 뒤에 편안히 세상을 하직하실 수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환자는 친구들과 마지막 담소를 나누며 천국에서 머지않아 다시 만나자고 말할 정도로 여유롭고 편안한 상태로 고통 없이 며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손수들도 만나서 사진도 찍고 심지어 생일 케이크까지 나누며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기억과 죽음을 담담하게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자녀들까지 평화롭고 편안한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들을 보고는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겠다는 생각만으로 환자를 고통 속으로 몰고 가던 관습에서 벗어나 죽음의 의미를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환자의 유익과 편안함에 가장 초점이 맞추어지는 임종완화치료가 우리 한인사회에도 하루 빨리 확산되기를 기원해봅니다.

tdspark@g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대사증후군

만성 성인병과 연관관계 높아

- 50대 초반의 직장인 이 모 씨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나타

난 혈액검사 결과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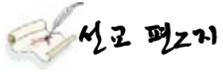
왔다고 자부했던 이 씨에게 당뇨병과 고지혈증이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씨는 담배나 술을 전혀 하지 않는 기독교 신자고 가족 중에 당뇨병을 앓는 사람도 없었다. 미국에 이민 온지 5년이 되었는데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고 체중은 5년 동안 5kg 정도 늘었다. 이 씨는 당뇨병의 가족력이 없는 자신에게 왜 당뇨병이 생겼는지 궁금했다.

과거에는 당뇨병, 동맥경화, 고지혈증의 만성 성인병을 별개의 질환으로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하나의 질병이 발병하면 다른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본다. 이것을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이라고 한다. 대사증후군은 체내 인슐린이 충분히 있어도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올라가는 '인슐린 저항성'을 보인다.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 방법은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이상, 여성 80cm 이상의 복부비만, 혈중 중성지방수치 150mg/dL 이상, 130/85mmHg 이상의 고혈압,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남성 35mg/dL 이하거나 여성 40mg/dL 이하, 공복 혈당 110mg/dL 이상 혹은 당뇨병 치료중인 경우 등 다섯 가지

중 세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한다. 생활양식은 나라별로 큰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이 발달한 서울이나 도쿄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해 생활한다. 오랜만에 서울에 가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떠오르는 생각 중 하나가 서울에 살려면 많이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생활은 이와 달리 대부분 차를 타고 다니고 걸어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인체는 자신이 섭취한 칼로리를 활

동을 통해서 적절히 태워 없애주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비만이 되고 당뇨나 고지혈증 등 만성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대사증후군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규칙적 운동을 통해서 혈중 인슐린의 저항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식습관을 변경해 탄수화물 섭취를 전체 칼로리 중 50% 미만으로 낮추고 현미밥, 과일, 채소 등 섬유질이 포함된 저탄수화물 식 중심의 식생활을 하고 칼로리와 지방이 높은 패스트푸드는 피해야 한다.



선교 펴기

파라과이

2019년도를 보내며 2020년을 맞이하면서 2019 주님 탄생하신 성탄과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파라과이를 사랑하고 어려운 경제 중에서도 정성어린 선교 헌금을 잊지 않으시고 보내주시며 기도도해주시는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2020년 새해에 주님의 임재를 기도합니다.

2019년 2학기 기독교 예술 학교의 개학, 파라과이장로교 신학교 개강은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복음적 학교로 신학교 교회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1. 할렐루야교회는 추수감사주일날 한해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오게 하신 과거에 감

사, 현재 숨쉬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시간주심을 감사, 다가올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아세례식도 성찬식도 겸하여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2. 기독교예술 유치중고등학교는 유치원 졸업(12.2) 초중고등학교 졸업(11.30)식을 갖고 좋은 전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성경적 설교에 감명을 받았으며 더욱 신앙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달라고 함이 더욱 힘이 솟습니다.

3. 파라과이에 여섯 번째 세운 개척교회 AmorPaz(사랑과 평화)는 교육과 훈련과 봉사로 교회가 다져져가고 있습니다. 이 새싹들이 자라서 장차 이 동네의 주인공과 이 나라 일꾼 되도록...기도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색깔하기를 제일 재미있게 하고 성경 요절 암송과 찬양시간에는 목이 터져라 부

르고 무용은 서로 다투며 나서 선생을 따라 하곤 합니다.

장차 이들이 자라나서 이 동네와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정성을 쏟아 부어 봅니다.

4. 우리 집에 큰 경사가 났습니다. 막내딸 정다운이와 사위 이경성 전도사가 일년간 우리 사역지를 도와주어서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교사로 지망하여 결국 선교사 훈련을 위하여 파라과이를 떠났습니다.

사위는 브라질 마나우스에서 사역하시는 이성진 김신숙 선교사 장남인데 10세 아빠따라 선교지 가서 인디오들과 공부하다가 미국 보스턴의 대학을 마치고 애틀랜타 에모리대학 경제학석사를 취득, 미국서 은행지점장까지 갔다가 다 접고는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감리교교단 MK회장이고 MK장학재단(미국정부허가)을 만들어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딸 정다운이는 초



등 6학년 때 파라과이로 와서 현지 공부하면서 총신 유아교육, 사우스웨스턴신학대학 기독교어린이 심리학 석사를 취득하고 남편과 하와이 아이에어 감리교서 9년간 남편과 같이 하와이 어린이를 위한 교육과 방송을 하다가 다 접고 파라과이로 2019년 한해 동안 무보수로 영어 한글 포어 스페니시로 학교 교회 등에서 사무국장 기독교교육 전공 선교사역

하다가 지난 주간에 애들 셋을 데리고 훈련을 떠났습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1)훈련을 잘 마치고 2)후원교회 연결 3)건강위하여.

5. 앞으로의 기도 제목들

1)신학교 기숙사 신축 30만 불을 놓고 기도중입니다. 타국에서 복음적인 신앙의 학사증을 취득하기 위해 문의가 이곳 저곳서 오는데 기숙사가 없어

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본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소도시에 본교를 설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교회와 학교와 신학대학에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달은 신학교나 우리 일반학교 교사 보너스, 일부 퇴직금 등등 학교 보수공사가 잘 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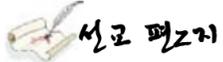
3)2020년 교사 교수 임용과 신학기 학생모집이 잘 되어 전도의 문이 넓어지도록

4)여섯 번째 세운 개척교회 사랑과평화교회 건축과 입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지역사회에 복음의 등대가 되도록. 천국 일꾼 양성이 잘 진행되도록

임마누엘! 여러 동역자들의 기도가 파라과이 복음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파라과이에서 정금태 이복래 선교사 드립니다.

amorr1004@hanmail.net



선교 펴기

필리핀 민다나오섬

어느 덧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이 되었습니다. 늘 부족한 저희를 위해 잊지 않고 기도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① 뚜부란 모슬렘 마을 아이들

새희망 학교는 아침 7시 10분에 국기 게양식을 하고, 7시 20분부터 첫 수업이 시작됩니다. 필리핀 대다수의 학교가 아침 일찍 수업을 시작합니다. 한낮의 더위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아침 일찍 등교를 합니다. 새희망 학교에서 가장 먼 곳에서부터 등교를 하는 아이들은 '뚜부란'이라는 외진 바닷가 모슬렘 학생들입니다. 아직 어둡어득한 5시가 조금 넘으면 아이들은 울퉁불퉁한 해안가 자갈길을 따라 등교를 합니다. 비가 오거나 파도가 높은 날은 해안가 길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 뒤에 있는 산을 넘어



등교를 합니다.

② 주일학교 성경 암송 대회 매 주일 예배시간에 설교에 관련된 성경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체크를 해서 외워온 아이들에게 성경 포인트를 한 장씩 주고 다섯 장을 모아온 아이들에게는 조그마한 상품을 줍니다. 처음에는 말씀 외우는 것을 게을리 하던 아이들도 포인트를 모아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성경 암송 대회를 하였는데 예배 시간이 3시간가량 걸렸습니다. 서로 외워온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③ 경찰의 호위를 받다.

얼마 전 잠보앙가 도시에 영국인 부부가 잠시 방문하였다가 '아부사얌'이라는 이슬람 반군 단체에게 납치를 당하였

습니다. 거액의 몸값을 요구한 단체는 필리핀 정부군과 교전을 하였고 납치된 지 한 달 만에 구출 되었습니다. 납치 사건이 일어난 뒤부터 저희 부부는 학교 근처에 있는 경찰서로부터 매일 호위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오고 갈 때마다 경찰차가 뒤에서 호위를 해줍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해주는 거라 마음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호위를 하는 대부분의 경찰들이 모슬렘들이라 불편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늘 지켜주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호위를 오는 모슬렘 경찰들과도 친분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 복음을 전하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정윤 공윤자 선교사 ohgongtak@hanmail.net



선교 펴기

멕시코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카말루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종식 선교사입니다. 지금까지 앞서 행하시며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세리토스장로교회 실버사역팀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아테시아에 위치한 세리토스장로교회(박규성 목사 담임)에서는 74세-83세(평균 연령 77세) 실버 선교팀이 3년 전 구성이 되어 매년 분기별 해외선교를 다니다가 2019년 하반기 선교를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카말루 소재 "GMI 멕시코를 그리스도에게로"(빠블로 이종식선교사) 사역지로 4박5일의 일정으로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편히 집에서 휴양지에서 쉬을 줄여야 할 은퇴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된 선교팀들은 어린이성경학교 풍선사역, 의료사역, 사진사역, 안경사역, 말씀사역으로 나누어 일사분란하게 젊은 선교팀 못지 않는 열정으로 새벽부터



실버사역팀들이 미용사역을 펼치고 있다 저녁까지 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5일간의 선교사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아픈 형제들에게 치유와 기도로 사랑으로 섬겨주었고 미용을 하신 권사님은 웃음을 잃지 않으며 하루일 손가락이 부르드도록 주 섬기는 모습에 79세 나이는 간곳없어 보였고 예수님의 미소만 가득 했습니다.

침 사역, 사진사역, 그리고 이미용사역, 안경사역하시는 한분 한분의 손마디 마디는 주름으로 가득하지만 아버지 섬기고 사랑하는 열정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내년에는 공동체 별로 신청을 받아 은퇴하신 성도님들의 선교를 통한 섬김을 동역하려고 계획 기도중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좋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 실버선교학교 선교사 모

집 실버선교학교에서 선교세미나와 선교지 섬김으로 4박5일 일정으로 섬겨주시 실버 멤버들을 모집합니다. 각 교회나 공동체 중심으로 담임목사의 허락 하에 10-12명을 모집하여 카말루 센타 숙소에서 숙식을 하며 전도, 섬김, 달란트 훈련을 하는 실버선교학교에 동참을 안내 해드립니다. 단체 리더께서 (714)749-4799나 GMIPAULRI@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동차 도네이션 부탁 자동차 도네이션을 기다립니다. LA와 센터를 오가는 차가 고장이 나서 3주째 수리를 했는데 사용불가판정이 났습니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인디오섬김이 선교사 이종식 올림 GMIPAULRI@GMAIL.COM

초청합니다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 및 이춘근 박사(국제정치학) 신앙 강연회

일시: 2020.1.4(토) 3시, 5(주일) 3시
장소: 시온성결교회 (워싱턴+웨스트모아랜드) (2149 Washington Blvd., L.A. CA 90006)

강연 4일 (토) -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국제정세
5일 (주일) -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초청하는 자



고문단 대표 한기형 목사 (남가주 교회역직전회장)



대회장 황선철 장로 (미주 CBMC 서부총회장)



대회장 이형숙 회장 (연세대학교 남가주동문회장)



대회장(협력) 김희창 목사 (남가주 한국예배역 기독교연합회장)

- 연세대학교 정외과 동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 텍사스대학교(UT) 정치학박사
- (논문:중국적 국제질서 하에서의 전쟁에 관한 연구)
- 구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총빙연구위원
- 서울대 사법대학 윤리교육학과 강사
- 이화여대 경영대 국제사무학과 겸임교수



이춘근 Lee Choon Kun

공동주최: 남가주 한국예배역기독교인회(KVMCF SC 회장 김희창), 미주3 지역동지회(회장 그레이스 송), IAMA(회장 강순영), KCBC 기독교방송(대표 한기형) 남가주목동동지회(회장 최만규), 대한민국6 25 참전유공자회(회장 김예룡), 영관장교회 미서부지회(회장 진재곤), 미주포병전우회(회장 권영구), 미주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이재권), 자유대한지킴이국민운동본부(회장 노인수)

주관: 미주CBMC서부총회(회장 황선철 장로), 연세대학교남가주동문회(회장 이형숙)

행사총괄: 안신기 목사(전화: 909-677-0028)

영어로 보는 성경 (48)

English Bible

이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1Corinthians 13:4-7

4)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It does not envy, it does not boast, it is not proud, 5) It does not dishonor others, it is not self-seeking, it is not easily angered,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6) Love does not delight in evil but rejoices with the truth. 7) It always protects, always trusts, always hopes, always perseveres. 8) Love never fails. But where there are prophecies, they will cease; where there are tongues, they will be stilled; where there is knowledge, it will pass away.

<NIV 2011>

WORD & IDIOM

* patient: 인내하는 * envy: 부러워하다, 선망하다 * boast: 자랑하다 * dishonor: 명예를 손상시키다, 창피를 주다 * self-seeking: 이기적인, 제멋대로의 * delight in ~: ~를 기뻐하다, 즐거워 하다 * rejoice with the truth: 진리와 함께 기뻐하다 * persevere: 견디다 * pass away: 사라지다.

GRAMMAR

4)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사랑은 인내한다, 사랑은 친절하다.

It does not envy, it does not boast, it is not proud.
그것은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만하지 않는다. => 사랑은 인내하며 친절하다. 사랑은 부러워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다.

5) It does not dishonor others, it is not self-seeking.

그것은 남을 창피하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기적이지 않다, it is not easily angered,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그것은 쉽게 성을 내지 않는다, 그것은 나쁜 것들의 기록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는다. => 사랑은 남을 창피하게 하지 않으며, 이기적이지 않으며, 쉽게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는다.

6) Love does not delight in evil but rejoices with the truth.

사랑은 악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 사랑은 악을 즐거워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7) It always protects, always trusts, always hopes, always perseveres.
그것은 늘 보호해준다 늘 믿는다, 늘 바란다, 늘 견딘다.

* 위의 문장들 속에 나오는 모든 (It)는 4절에서 이미 주어로 언급된 <사랑>을 가리키는 인정대명사이다. 모든 절의 내용을 보면 완전한 문장 뒤에 ()를 찍고 계속 이어나가는 구조로 되어있다. 문장하나 하나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한 문장씩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마침표(.)가 있는 데 까지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 2형식 문장에 사용되는 <Be>동사는 주어를 수식하는 보어가 무엇인가에 따라 주어인 문장의 어법에 맞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Be>동사 다음의 수식어로 명사(noun)가 오면 <~이다>로 해석을 하고, 4절의 <Love is patient> 나 <Love is kind>와 같이 형용사(adjective)가 오면 <be>동사와 묶어서 <주어(Subject)가 형용사하다>로 번역해야 한다.

cf. I am a Christian(나는 기독교인이다). He is faithful(그는 신실하다).

8)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where there are tongues, they will be stilled;

방언(들)이 있는 곳에 그들(방언들)이 멈추게 될 것이다

where there is knowledge, it will pass away.

지식이 있는 곳에 그것(지식)이 사라질 것이다 =>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다. 방언이 있는 곳에 방언이 멈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있는 곳에 지식이 사라질 것이다.

STUDY & THOUGH

■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 독생자를 주신 절대적 사랑이며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기희생적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은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된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우리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이기도 하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을 일상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구체적 덕성으로 언급하고 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지향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앞에서 끝나는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이다. 8절은 이러한 사랑은 변하거나 없어질 수 없는 영원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Whoever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receive salvation.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나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왕상21:1-2)

본문은 먼저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외에 욕심을 부리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왕 시대는 다윗왕 이후로 가장 막강하고 풍성한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나라의 왕입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왕궁에 가까이 있는 나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자신의 나뭇

밭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의 욕심이 참으로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욕심을 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라도(왕상21:3)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또한 성도는 그 누구 앞에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야 함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나뭇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 쓴 사람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포도원을 왕에게 파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

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레25:23-28). 나뭇이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살았던 사람이라면 왕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로 살기 위해 왕 앞에서라도 거절하는 나뭇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다짐합니다.

수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왕상21:4-16)

성도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그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죄악을 행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뭇이 조상의 유업을 팔수 없다고 하니가 왕이 침상에 얼굴을 돌리고 누워서 식사를 하지 않습

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세벨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씌웁니다. 먼저 나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고 왕의 어인을 찍어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보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강패를 동원해서 두 증인을 세우고 높이 달아서 결국 돌로 쳐 죽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큰 죄를 진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처벌방법입니다.

목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핏대하리라(왕상21:17-19)

나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은 그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이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극적으로 재앙을 비껴가는 것이 본문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인간이 아무리 아무도 모르게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

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아주 비열하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미국은 성경으로 나라의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것을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로 다룹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무리 완전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왕상21:20-26)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온 성도들은 은혜를 나누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

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비참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잘못을 지적해주는 선지자를 대적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잘못된 것이 지적될 때는 아픕니다. 그러나 나에게 바른 말씀을 전해주고 올바르게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토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왕상21:27-29)

아합의 죄악은 정말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합왕이 엘리야의 심판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즉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행보도 천천히 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보시면서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모두 용서 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일시적으로 회개했지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은 겸손하게 내어놓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용서 받을 뿐 아니라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돼야겠습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운반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2019 본지가 보도한 한인교계 10대 뉴스 <보도순>

1.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 사장 이취임 예배(1716호, 1,3면)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 사장 이취임 예배가 지난 1월 26일 저녁 6시 옥스포드 팰레스 호텔에서 열렸다. 지역 교계 목회자 및 단체, 언론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취임식에서는 이임하는 장영춘 목사를 회고하고 취임하는 김성국 목사를 격려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예배, 2부 만찬과 교제의 시간으로 새로 단장한 웹사이트를 선보이고 참석자 모두에게 본지 부설 출판사 '히스핑거'(His Finger)의 첫 번째 작품인 김성국 목사의 저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를 본사가 준비한 선물과 함께 참석자들에게 증정했다.

2. UMC특별총회 전통플랜 최종결정(1721호, 9면)



연합감리교회(UMC) 특별총회에서 전통플랜(Traditional Plan)이 최종 결정됐다. 지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UMC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전통주의 플랜을 438 대 384(53%와 47%)로 통과시켰다. 최종 결과는 전날(찬성 461, 반대 359)보다는 찬성이 소폭 하락했지만 53%의 지지를 얻었다.

25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총회에서 전날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하나의교회 플랜'(One Church Plan)은 소수의견(a minority report)으로 투표를 진행했으나 찬성 374, 반대 449으로 최종 부결됐다. '하나의교회 플랜' 지지자들은 소수 의견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지지 호소했으나 오히려 전날(24일) 투표 결과(찬성 386, 반대 436)보다 반대표가 더 많아졌다.

한편 UMC 한인교회연합회(공동준비위원장 류재덕 목사, 이철구 목사)는 총회를 마친 다음 날인 2월 27일 UMC특별총회 결정에 환영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3. APU 동성애 왜곡보도 관련 기자회견(1726호, 9면)



아주사피서픽대학 교(이하 APU)는 지난 9일 오전 11시 최근 불거진 동성애 관련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닌 왜곡보도 된 것에 대해 학교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로텍스 호텔에서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석부총장 데이빗빅스비 박사와 총장특별자문 박성민 박사가 참석했다.

데이빗 빅스비 박사는 "APU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Human Sexuality), 즉 결혼관은 남자와

여자와의 결합이며 이러한 내용은 바뀔 적도 바꾸려고 한 적도 없다"며 "이는 APU는 학교 신앙고백서이자 헌법인 'What we believe God'에 기초하고 있으며 학생가이드북, 교수가이드북, 직원가이드북 모두 동일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박사는 "APU는 불신자 입학은 물론 LGBT의 입학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APU에 재학하려면 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가이드북의 내용은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4. 제 36차 C&MA한인총회(1727호, 9면)



제 36차 C&MA한인총회(감독 백한영 목사)가 지난 22일 저녁 뉴욕어린양교회(박윤선 목사)에서 시작됐다. 감독선거는 후보 조현배 목사(시카고 한인서부교회 은퇴)가 2회에 걸친 투표에서 2/3 찬성을 얻지 못해 신임 감독 선출은 무산됐다. 위원회는 백한영 감독을 1년 더 유임시키고 1년후 다시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이라는 표어와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이다"(눅10:17)이란 주제로 1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백한영 감독은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또 총회 개최지 뉴욕의 동부지역회장 이지용 목사(뉴욕갯세마네교회)는 "C&MA한인총회가 종교 다문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직 영혼구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영적 군사를 배출하는 교단이 되기를 바란다"며 "첫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길, 둘째,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셋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를 강조했다.

5. 기감 제 27회 미주자치연회(1730호, 9면)



기독교대한 감리회의 제 27회 미주자치연회가 '주 안에서 서로(빌4:1) 하나 됨, 개혁, 도약'을 주제로 7일과 8일 양일간 나성동산교회(이경환 목사)에서 개최됐다.

은희근 감독은 미주자치법의 영문판 발행안내, 미주감신 졸업자의 한국내 목회허용 입법추진, 선교사 파송이 가능한 미주선교훈련원 개소, 미주자치연회 선거법개정, 2교구제, 타교단 파송, 한미목회협력위원회, 한반도평화통일위원회, 미국교회협력회(NCCA) 가입 추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둘째 날 회무는 분과위원회 보고로 시작했다. 그리고 19개 지방의 감리사 선거가 있었다. 하지만 미서북부와 중부동 2개 지방은 감리사가 선출되지 못했다.

미주자치연회는 제27회 연회를 폐회하면서 선언문을 채택해 제27회 미주자치연회를 통해 '하나가 되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며 개혁과 도약에 전념할 때,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고 상처에 새살이 다시 돋게 됨을 믿는다'며 회개 일지

준수 개혁 선명 평화통일 등 6개 부분에서 주자치연회의 의지를 천명했다.

6. KPCA 제 44회 정기총회(1731호, 1,3면)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 44회 총회가 5월 7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신임 총회장에 이기성 목사가 추대됐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엡4:24)'라는 주제로 밴쿠버 삼 성교회에서 열린 총회는 7일 개회예배 및 총회, 8일 43회 보고 및 44회 회무 처리, 삼성 교회 수요일예배 참석, 9일 회무 및 폐회 등을 주요 일정으로 진행됐다. 임원선거에서 선출된 새 임원단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이기성 목사 △목사 부총회장 이재광 목사(동남노회) △장로부총회장 한광호 장로(필라노회) △서기 박상근 목사(서북남노회) △부서기 김도완 목사(뉴저지노회) △회록서기 김일호 목사(수도노회) △부회록서기 이태한 목사(뉴질랜드노회) △회계 이민식 장로(서노회) △부회계 김범기 장로(캐나다동노회) △영어회록서기 John Kim(영어노회).

7. KAPC 제43회 정기총회(1732호, 1,3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재열 목사) 제43회 총회가 '항상 정의와 의를 행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 힐튼호텔 LAX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 총회장에 양수철 목사(가주노회/에버그린선교교회)가, 부총회장에 조문휘 목사(뉴욕동노회/온누리장로교회)가 선출됐다.

총회장 양수철 목사는 "목회하면서 45년 동안 '성실하게 살자'고 결단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과 교회와 노회, 그리고 개혁장로회신학교 이사로 재직하면서 성실함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감사하다"며 "이제 총회를 성실하게 섬겼다"고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인사했다. 다음은 제43회 KAPC 총회 임원명단이다.

△총회장 양수철(가주노회/에버그린선교교회) △부총회장 조문휘(뉴욕동노회/온누리장로교회) △서기 한일철(동남부노회/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부서기 김미성(서북미노회/한마음장로교회) △회록서기 김광중(남가주노회/새창조교회) △부회록서기 전대규(아시아노회/제자교회) △회계 김원도 장로(뉴욕노회/윈즈장로교회) △부회계 김영석 장로(북가주노회/상향중앙장로교회).

8. 할렐루야 2019 대뉴욕복음화대회(1738호, 1,3면)

정연철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할렐루



야 2019 대뉴욕복음화대회가 7월 12일부터 사흘간의 저녁 집회와 2회의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막을 내렸다.

첫날 대회사에서 교협회장 정순원 목사(빛과 소금교회)는 "제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실현하는 종으로 거듭나게 되면 교회와 교계 그리고 사회가 성결로 변화되어 서로 신뢰하는 사회 교계 교회가 되어질 것이며 전도의 문은 활짝 열리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속히 준비되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철 목사(삼양교회)는 첫날 "문제의 원인은 나"(창35:1-5), 둘째 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느1:1-5), 셋째 날 "귀있는 자는 들으라!"(마13:5-9)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9.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동성애예방교육 세미나(1738호, 11면)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회장 송정명, 진유철 목사)는 남가주 지역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동성애 예방교육 세미나를 7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에서 실시했다.

강사로 동성애자, 에이즈환자 전문의 염안섭 원장(현 한국 수동연세요양원)이 초청됐으며 염 원장은 "동성애는 유전적 또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성애를 일으키는 염색체 등 유전자는 없으며 100% 후천적이며 학습으로 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염 원장은 그는 "공중과 방송에서 동성애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다가 방송출연정지를 당한바 있다"며 "동성애 실상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에 '레인보우 리턴즈' 방송을 하고 있다. 현재 17,000명 구독자가 있으며 이 방송이 많이 알려져 올바른 성교육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10. 가주 ACR99발의안 반대 설명회(1740호, 9면)



가주 ACR 99발의안 반대를 위한 남가주 지역 교계지도자 초청 설명회 및 서명식이 7월 24일 오전 11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TVNext 사라김 사모(본지 "아는 게 힘이다" 필자)와 남평 김태오 목사가 강사로 나섰다. 사라김 사모는 "이 결의안은 인권운동을 빙자해서 나온 것이다. 가주 ACR99 결의안은 캘리포니아 주의 문제만이 아닌 미 전역의 교회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설교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유해한 법이다. 목회자와 영적 리더들에게 성경부인을 강요하는 약법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미국의 기독교 정신을 말살시키는 주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